

# 인도네시아 마두라(Madura)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인도네시아 동부자바(East Java)의  
마두라섬(Madura Island)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 Asia Field Research) 17기 훈련팀<sup>1</sup>

---

<sup>1</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 Asia Field Research) 17기 훈련팀에서 2009년 7월 3일 ~ 2009년 7월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마두라섬을 중심으로 마두라 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 목 차

### I. 조사설계

### II. 들어가는 말

### III. 마두라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교육분야
8. 종교분야
9. 기독교 상황

### IV.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현재 이슈들

### V. 마두라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마두라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3. 마두라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마두라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 VI. 나가는 말

# I. 조사설계

## 1. 조사의 필요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도서(島嶼) 동남아시아에 속한다. 인도네시아는 다섯 개의 주요 섬과 수천 개의 섬, 그리고 수백 개가 넘는 언어와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절대적 인구수로 볼 때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sup>2</sup>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10/40창<sup>3</sup>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망개척지수가 F3으로 복음주의자 비율이 5%미만이며 박해지역으로 선교의 시급성을 갖는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종족은 토속신앙과 이슬람이 혼재하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특별히 이슬람의 영향이 강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종족이다. 이들은 동부자바(East Java Province)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살고 있으나 그 뿌리는 마두라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다혈질적이며 저속한 문화를 가진 종족이라고 인식되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종족에 대한 정체성이 점차 사라져가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마두라 종족 내에는 여전히 종족 고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집단도 존재한다.

마두라 종족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중심 지역이 될 마두라섬은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마두라섬은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Surabaya)시(市)와 이어지는 수라마두(Suramadu)<sup>4</sup>의 완공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동부자바의 중심도시인 수라바야와 인접해있는 마두라섬은, 대부분의 토지가 평지라는 이점이 있다. 이 특성과 더불어 급증하는 수라바야의 공업용 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공업단지가 조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마두라 종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마두라 섬의 마두라 종족과 정체성이 강한 마두라 종족 집단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마두라섬 내 마두라 종족을 총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마두라 종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선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2</sup> 인도네시아는 1억 7499만 명이 무슬림으로, 세계 2위로 무슬림이 많은 방글라데시(1억 1727만 명)보다도 5000만 명 가량 더 많고 5위를 차지한 이란(6666만 명)보다도 3배 가까이 많다. 이슬람 선교, [www.jslammission.org](http://www.jslammission.org) (검색일: 2009년 6월 28일)

<sup>3</sup> 북위 10~40도 사이,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 모여있는 구역을 뜻한다.

<sup>4</sup> 길이 5.48km,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로, 2009년 6월 24일에 개통되었으며 동부자바와 마두라섬을 연결한다.

## 2. 조사의 목적

- 1) 수라마두교의 완공으로 마두라 종족이 겪는 변화와 마두라 종족 내의 정체성이 강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 2) 마두라섬 내의 마두라 종족을 조사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선교적 접근법을 모색한다.
- 3) 이슬람의 세력이 강한 마두라 종족 가운데 필요한 사역자들을 동원하고, 마두라 종족에 대한 독창적인 선교전략을 제언한다.

## 3. 조사지역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마두라섬

마두라 종족은 동부자바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이 역사적으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마두라섬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4. 조사대상

마두라 종족

모국어는 마두라어이며, 인도네시아 공용어를 사용한다.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다.

##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7월 2일 ~ 2009년 7월 22일<sup>5)</sup>

---

<sup>5)</sup>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7/02- 2009/07/08	수라바야	현지인 가정방문	인터뷰
		현지인선교사 1명	인터뷰
		한국인선교사 2명	인터뷰
		마두라 종족 마을 방문	관찰조사
2009/07/09- 2009/07/14	마두라섬	마두라 종족 마을1	관찰조사
		마두라 종족 마을2	관찰조사
		마두라 종족 마을3	관찰조사
		마두라 대학 대학생들	인터뷰
2009/07/14- 2009/07/19	빠수루안	마두라 종족 마을 방문	관찰조사
		빠수루안 시립 도서관	관찰조사
		한국인 선교사 3명	인터뷰
2009/07/19-2009/07/22	수라바야		문화체험

## 6. 조사인원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팀<sup>6</sup> 9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김가현	생명과학부 (07)	총무부장
2	김다인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예배부장
3	김진리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총무부원
4	이반석	국제어문학부 (08)	디렉터, 문서자료부원
5	임다혜	글로벌리더십학부 (09)	문서자료부원
6	장운하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8)	미디어부장
7	정다빈	법학부 (08)	문서자료부장
8	최지성	글로벌리더십학부 (09)	미디어부원
9	한빛송이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예배부원

<sup>6</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SFR(South-East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 2) 통역자 및 현지가이드 3명

	이름	소속	역할
1	루*	-	현지 가이드
2	루* 동역자	-	현지 가이드
3	*김	-	통역 및 현지 가이드

## 7. 조사방법

### 1) 사전조사

#### (1) 문헌 조사

##### ① 인터넷 조사

이슬람 선교, [www.jslammission.org](http://www.jslammission.org)

인도웹, [www.indoweb.org](http://www.indoweb.org)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dn.mofat.go.kr](http://www.idn.mofat.go.kr)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ndonesiaseoul.org](http://www.indonesiaseoul.org)

크리스천 해럴드, [www.christianherald.tv](http://www.christianherald.tv)

한국 브리태니커, [www.britannica.co.kr](http://www.britannica.co.kr)

한국 컴퓨터선교회, [www.kcm.co.kr](http://www.kcm.co.kr)

한국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Britannica, [www.search.eb.com](http://www.search.eb.com)

CIA, [www.cia.gov](http://www.cia.gov)

EastJava.com, [www.eastjava.com](http://www.eastjava.com)

Indonesia Cultural and Art, [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http://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

##### ② 문헌 조사

강신오. “인도네시아 선교역사”, 『Mission Magazine』, 제 147호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5)

이춘모. 인도네시아 선교의 이론과 실제 II, 「선교와 현장」, 제 11집 (2006년 12월)

이춘모. 개신교 종교 교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 연구, 「선교와 현장」, 제 11집(2006)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8)

Harry Firman&Burhanuddin Tola. “The future of schooling in Indonesia”, CICE Hiroshima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Vol.11 No.1 (2008)

『Ensiklopedia Anak National』 PT. Delta Pamungkas

## (2) 전문가 인터뷰

- ① 루\* 선교사
- ② 김\*\* 선교사

## 2) 현장 조사

### (1) 관찰 조사

수라바야 인근지역의 마두라 종족 집단 거주지역  
마두라 섬 내의 다수의 마을

### (2) 인터뷰

- ① 전문가 인터뷰  
현지인 사역자, 한국인 사역자

- ② 일반인  
마을 주민들

### (3) 문헌 조사

- ① 인터넷 조사  
East Java, [www.eastjava.com](http://www.eastjava.com)  
KBS 2TV <지구촌뉴스> (2008년 4월 2일)
- ② 문헌 조사  
김요한. 민속 이슬람에 대한 상황화 전략 (2002)  
The Jakarta Post (2009년 7월 3일)

##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이 조사한 마두라 섬에 살고 있는 마두라 종족은 자바족에게 차별을 받으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동부자바의 마두라 종족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본조사팀은 3주간의 리서치를 통하여 마두라 종족에 대한 오래된 기존 정보를 갱신하고 현장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마두라 종족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관찰조사함으로써 현장감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지만은 않은 마두라 섬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인터뷰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였고, 외부인이라는 정체성도 걸림돌이 되었다. 외부인으로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는 것이 마두라 섬에서는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고 적극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또한 보안상 마두라섬에 길게 체류하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서 외부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조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단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는 영적인 눈으로 이들을 재조명하여 바라보고 강한 이슬람의 영에 묶여 있는 이들의 실생활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II. 들어가는 말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로 1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족이 공존하는 곳이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나라는 절대적 인구수에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다. 13세기 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이슬람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인들의 삶 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본 조사팀이 현장에서 조사한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강한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종족인 마두라 종족은 동부자바와 마두라섬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마두라섬에 있다. 해적으로부터 기인한 그들의 호탕하고 직설적인 성격이 마두라 종족만의 독특한 성격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종족들은 마두라 종족을 다혈질이며 야만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마두라 종족 스스로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두라 종족의 정체성 형성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부자바에 거주하는 마두라 종족은 정체성이 점점 약화된 경우이며, 마두라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오히려 강한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이다. 동부자바의 마두라 종족의 문화나 생활은 자바족과 많이 동화되었다. 또한 동부자바에서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마두라섬의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두라섬을 집중 조사함으로써 마두라 종족의 역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고,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마두라섬에 거주하는 마두라 종족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조사팀은 2009년 5월에 완공된 수라마두교를 통하여 마두라섬 내에 거주하는 마두라 종족이 겪게 될 변화에도 비중을 두었다. 수라마두교가 완공되기 전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마두라섬은, 다리의 개통으로 인해 서서히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수라마두교에 대한 마두라섬 내 마두라 종족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두라 종족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기도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역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통해 마두라 종족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마두라 종족이 그들의 춤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 Ⅲ. 마두라 종족의 현황

#### 1. 일반개요

##### 1) 지역개관



〈그림 Ⅲ-1〉 인도네시아 전도

인도네시아는 총 17,508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로 육지 면적은 182만 6,440km<sup>2</sup> 해양 면적은 93,000km<sup>2</sup>, 총 국토 면적이 191만 9,440km<sup>2</sup>에 달한다. 이 나라는 적도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약 2,000km에 걸쳐 길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sup>7</sup>

대표적인 종족은 자바족(45%), 순다족(13.6%), 마두라 종족(6.2%)<sup>8</sup> 등이며

전체적으로 300여 종족이 혼합되어 있다. 말레이어의 변형된 형태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영어, 네덜란드어, 지방 방언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인구는 2억 4,027만 1,522명이고<sup>9</sup> 인구 증가율은 1.175%, 평균 수명은 남성 67.13세, 여성 72.13세이다.<sup>10</sup>

동부자바의 우편에 위치한 마두라섬은 마두라 종족의 근원지이며, 현재 약 300만명의 마두라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마두라섬은 상업도시인 방칼란(Bangkalan), 종교도시인 삼팡(Sampang), 교육·행정도시인 빠뜨까산(Pamekasan), 그리고 고대문화의 도시인 수머넵(Sumenep)으로 나누어진다.

##### 2) 정체성

<sup>7</sup>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5). p.9

<sup>8</sup>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ndonesiaseoul.org](http://www.indonesiaseoul.org) (검색일: 2009년 7월 24일)

<sup>9</sup> The World Factbook, CIA, [www.cia.gov](http://www.cia.gov) (검색일: 2009년 7월 24일)

<sup>10</sup> Ibid.

마두라 종족은 대개 타 종족에 비해 피부가 검고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이 수염을 기른다. 마두라 종족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들의 조상이 해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토양이 척박한 마두라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발리(Bali), 술라웨시(Sulawesi), 칼리만탄(Kalimantan), 아랍,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온 해적들이 마두라섬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에게서 형성된 마두라어는 자연스레 여러 가지 언어를 혼합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섬으로 들어온 여성들은 대부분 매춘부였으며, 해적들과 결혼을 하면서 점차 가정을 이루었다. 해적문화 가운데서는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존경을 받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해적 문화에 기반하여 이와 같은 마두라 종족의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2〉 마두라 종족

마두라 종족의 독특한 특성을 통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마두라 종족은 자신보다 지위 혹은 나이가 높은 사람을 존경하며 섬긴다. 연장자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예절문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로, 마두라 종족은 자존심이 강하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등 상당부분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과 가정을 침범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데, 이는 ‘짜록(carok)’이라는 그들의 관습에서 드러난다. 짜록은 ‘피의 복수’를 위해 낮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를 안겨준 사람에게 행한다. 이 때 사용되는 낮은 쓰룰릿(celurit)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마두라섬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로부터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혹은 시도를 했거나, 토지와 관련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에 암살의 도구로써 사용된다. 이를 통해 마두라 종족에게 체면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셋째로, 마두라 종족은 충성심이 강하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들의 충성심은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연결된다.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동체가 이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배척당한다. 넷째로, 마두라 종족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솔직한 이들은 전심으로 손님을 환영하며, 외부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 3) 인구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4,027만 1,522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인구 밀도는 93명/km<sup>2</sup>이지만,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6개의 주(州)로 구분되는 자바 섬은 전 국토 면적의 6.63%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9.19%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밀도가 945명/km<sup>2</sup>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인구 밀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12,867명/km<sup>2</sup><sup>11</sup> 이나 된다. 한편,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파푸아섬(과거 이리안자야)의 경우 8명/km<sup>2</sup>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강제 이주 계획을 실시하여 자바 섬에 편중되어 있는 인구를 다른 섬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sup>12</sup>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는 자바 섬에 몰려있는 인구를 인구 밀도가 낮은 수마트라 섬으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9년에 이주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자바 섬에서 수마트라 섬으로, 이후에는 자바 섬에서 칼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파푸아 등 다른 섬들로 이주하게 하였고, 1979년에서 1984년에는 53만 5,474 가구가 이주하여 최고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소모되는 비용과 재정착을 위한 장소 부족으로 인해 이주자가 감소하였고, 본 이주 프로그램은 2000년도에 중지되었다.

현재 마두라섬에 사는 마두라 종족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000만여 명의 마두라 종족이 섬 밖으로 나와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인도네시아의 기타 여러 지역에도 산재하여 살고 있다.

#### 4) 지리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와 북서 호주 대륙 사이에 위치해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17,000여 개의 인도네시아 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무인도이다. 주요 섬은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섬이다. 보르네오섬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로 나누어지고 섬의 75%가 인도네시아에 속하는데 칼리만탄섬으로 불려진다. 뉴기니아는 서부 지역만 인도네시아에 속하는데 명칭이 이리안자야에서 현재 파푸아로 변경되었다. 이 외에 마두라, 롬복, 술바와, 뿔로레스, 발리섬 등 작은 섬들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있어 일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기온은 자카르타를 기준으로 21℃에서 33℃ 정도이다.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20일에서 150일 정도 비가 내린다. 저지방의 연중 강수량은 1,780mm에서 3,175mm이다. 그러나 고산 지대의 연중 강수량은 6,100mm에 달한다. 습도는 일반적으로 높으며 연중 80% 정도이다.

<sup>11</sup>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검색일: 2009년 7월 25일)

<sup>12</sup> 이춘모, 인도네시아 선교의 이론과 실제 II, 「선교와 현장」, 제 11집(2006년 12월), pp. 169-250



선언하였으며 마침내 네덜란드는 1949년에 정권을 인도네시아에 이양했다.

## (2) 마두라섬의 역사

자바의 북동 해안에 위치한 마두라섬은 네덜란드인이 오랫동안 점령한 곳이었다. 네덜란드인은 섬의 비옥하지 않은 토양 대신 풍부한 인적자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많은 마두라 종족이 네덜란드 식민 군대에 공급되었다. 1870년 이후, 마두라섬은 인도네시아 군도 중 네덜란드 지배 지역에 소금을 공급하는 주된 지역으로써 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식민 정부의 이익을 크게 제공하는 중요한 독점 품목이었다.

한편 마두라섬은 방갈란, 삼빵, 빠르까산, 수머늬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마두라섬의 각 영주들은 내부 사안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16년, 네덜란드는 마두라섬에 대한 통치력을 영국에게서 회복하게 된다.<sup>15</sup> 곧이어 네덜란드는 1817년에 마두라 전 지역에 단일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마두라섬은 1828년에 수라바야에 있는 네덜란드 공관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마두라섬의 행정에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887년에 각 지역 영주들의 칭호를 군수급으로 격하시키며 그들의 특권을 축소시켰다.<sup>16</sup> 마두라섬에서 존재하던 네 왕국은 각기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각 왕국의 역사는 네덜란드에 의한 소멸정책으로 끝을 맺는다. 네덜란드는 1858년에는 빠르까산의 왕국을, 1883년에는 수머늬의 왕국을, 그리고 1885년에는 방갈란의 왕국을 제거하였다.

## (3) 방갈란의 역사

한편, 방갈란의 역사는 아로스바야 왕국의 건립으로부터 출발한다. 끼야이(Kiyahi)였던 드망(Demang)은 썸빵(Sampang)에서 팔라까란(Palakaran)에 도착하여 아로스바야 왕국을 세웠다. 이 후 그 아들 빠라갈보(Pragalbo)가 이어받아 안야르(Anyar)에 왕궁을 세웠다. 1531년 빠라갈보가 세상을 떠나자, 그 의 세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인 끼야이 빠라따누(Pratanu)가 왕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방문하는 꿈을 반복하여 꾸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던 쑤난 꾸두스(Sunan Kudus)에게 심복 바게노(Bageno)를 보내어 배우도록 하였다. 바게노는 쑤난 꾸두스에게서 이슬람을 배우고 빠라따누에게 돌아와 보고 하였다. 그러나 빠라따누는 자신보다 그가 먼저 새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몹시 화를 내었다. 이에 바게노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하여 빠라따누의 분을 가라앉혔다. 이 후 빠라따누는 이슬람을 배우고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아로스바야 왕국의 백성들

<sup>15</sup> 영국은 네덜란드의 공백기를 틈타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자바를 점령하였다.

<sup>16</sup>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5), pp.218-219

모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뽀라따누의 시대에 방갈란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다. 네덜란드에 의해 왕국이 소멸된 이후, 방갈란은 “부빠띠(Bupati)”(군수 격) 제도로 넘어 간다. 방갈란의 초대 부빠띠는 뽀애란 쑤리오느고로(Pangeran Suryonegoro)였는데 뽀애란 쑤르로아디닝랏(Cokroadiningrat)이라고 불리웠다. 방갈란의 왕국은 1891년도에 헐린 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빠띠 집무실로 바뀌었다. 1905년도에 방갈란 초대 부빠띠가 은퇴하게 되고, 그 아들인 라덴 아디빠띠 아리오 쑤리오위노또(Raden Adipati Ario Suryowinoto))가 부빠띠가 된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방갈란 부빠띠를 지내며 마두라 전체 대표의 역할을 하였다. 부빠띠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는 1945년 8월 17일 이후에도 세습제로 이어가다가 1957년도부터 지방관청 제도로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 (4) 삼빵의 역사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이 지배할 때만 하더라도 삼빵은 빠띠(Patih: 소지주) 정도가 다스렸다. 마자빠히트 힌두 왕국이 소멸해갈 때에 한 마자빠히트 왕자와 공주 캄파(Campa) 사이에 태어난 아리오 림부쁘팽(Ario Lembupeteng)이 삼빵을 지배하였다. 후에 삼빵에 부빠띠 제도가 도입된 뒤, 삼빵의 초대 부빠띠로 라덴 아리오 꾸쑤모아디닝랏이 임명되었다.

#### (5) 수머늬의 역사

네 개의 왕국 중 유일하게 옛 왕궁터를 보존하고 있는 수머늬는 1269년 이전까지 왕이 없었다. 이에 자바의 한 왕국이었던 싱오자리(Singosari) 왕국의 쑤르따느가라(Kertanegara)왕이 자바인을 보내어 수머늬를 통치하게 하였다. 수머늬를 통치한 초대 왕의 이름은 아리아 위라라자(R. Aria Wiraraja)로, 마두라 여인과 결혼하였다. 이 후, 자바족과 마두라 종족의 혼혈 계통이 왕위를 이어가며 수머늬를 지배하게 된다. 수머늬 왕국의 전설적인 인물로는 제 13대 왕인 조꼬똘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설화가 존재한다. 개중에는 조꼬똘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자, 그의 말이 날게 되었다는 설화도 있다. 이에 사람들은 조꼬똘리를 초자연적인 인물로 존경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말인 천마를 수머늬의 상징으로 여겼다. 조꼬똘리와 함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뽀뜨르 꼬능(Potre Koneng)이라는 여성이다. 어떤 설화에서는 이 여성을 조꼬똘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날, 뽀뜨르 꼬능이 숲에서 소와 잠을 자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보니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조꼬똘리이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뽀뜨르 꼬능이 조꼬똘리의 아내이며,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4개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조사팀이 한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많은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알라에게 복종한 자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슬

람은 17세기 초에 마두라섬에 들어왔으며, 그 전까지 마두라섬은 애니미즘 사회였다. 수머늬에 있는 왕들의 무덤의<sup>17</sup>(Asta Tinggi) 입구 우편에는 애니미즘 시대의 옛 문체가, 좌편에는 이슬람 시대의 아랍어가 적혀있다.

## 6) 요약

마두라의 상징은 소와 짜룩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논일을 하는데도 쓰이는 낮인 썬롤릿이다. 두 개의 상징은 마두라섬이 1차 산업에 기반한 사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마두라 종족이 특정 농작물이 심겨지는 때로 계절을 구분 짓는 것은 위의 사실을 더욱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종족인 마두라 종족은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2%를 차지하며,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들의 문화는 타 종족에게 미개하다고 취급 받기도 하지만 해적문화와 체면문화 등에 기반한 독창적인 문화이다. 또한 마두라섬의 네 왕족은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역사는 설화로 남아있으며 현재 마두라섬이 개통됨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 정치분야

### 1) 개요



〈그림 Ⅲ-4〉 뻘짜실라 상징,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sup>18</sup>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5일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건립된 나라이다. 그 전까지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가 아닌 수많은 왕조로 이루어진 섬이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 또한 독립과 함께 처음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뻘짜실라(Pancasila) 건국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뻘짜실라는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민족주의자인 수카르노 대통령이 체계화시킨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철학적인 원칙을 가리킨다. 이 원칙들은 신앙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대의정치, 사회

<sup>17</sup> 이 무덤에는 방갈란과 삼팡, 그리고 빠뜨까산과 수머늬 왕국의 왕족들이 묻혀있다.

<sup>18</sup> Country Studies, [www.countrystudies.us](http://www.countrystudies.us) (검색일: 2009년 6월 25일)



정의 구현, 통일 인도네시아를 말한다.<sup>19</sup> 신앙의 존엄성은 본래 이슬람과 함께 기독교, 불교, 힌두교를 다 인정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대로 인간이 가지는 동등한 권리를 가리키며 대의정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구현은 국민들이 모두 공평한 사회복지를 이루고 최대 행복과 최적의 조건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인도네시아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강조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뻘짜실라의 5가지 항목을 배우며,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조회시간에 뻘짜실라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여전히 뻘짜실라를 지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9년 7월 8일 역사상 두번째로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로 지난 2004년 선거에 이어 연임한다. 부통령은 경제학자인 부디오노(Boediono)이다.

## 2) 정치구조

인도네시아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민협의회(MPR)는 두개의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DPR)와 지방대표 협의회(DPD)로 이루어져 있다.<sup>20</sup> 국민협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결정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의원은 모두 550명이고 정당 명부 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2004년 10월 선거 결과 민주당(PD)이 148석으로 가장 많으며 골카르당(Golkar)이 108석, 투쟁민주당(PDI-P)가 93석 등이다.<sup>21</sup> 총 9개의 정당이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외의 29개의 정당은 2.5%미만의 투표율로 자리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지방대표 협의회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 자체 관련 사업과 사업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다. 지방대표 협의회는 128명으로 인도네시아의 32개 주에서 총 4명씩 선출한다. 입후보 자격으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 지방대표 협의회 의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이다.

## 3) 행정구조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반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다. 인도네시아의 지방행정기관은

<sup>19</sup> 노나 한, [www.blog.daum.net/insoogirane](http://www.blog.daum.net/insoogirane) (검색일: 2009년 6월 23일)

<sup>20</sup>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dn.mofat.go.kr](http://www.idn.mofat.go.kr) (검색일: 2009년 6월 24일)

<sup>21</sup> The World Factbook, CIA, [www.cia.gov](http://www.cia.gov) (검색일: 2009년 6월 24일)

30개의 주(Provinsi)와 2개의 특별지구(Daera-daera Istimewa), 하나의 특별시(Daera Khusus Ibukota)로 이루어져 있다.<sup>22</sup> 특별시는 수도 자카르타 특별시이며, 2개의 특별지구는 아체(Aceh)와 족자카르타(Yogyakarta)이다. 또한 327개의 군, 55개의 구, 3,841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두라섬은 수라바야를 중심도시로 하는 동부자바주에 들어가며 방갈란, 삼쌍, 빠르까산, 수머늬의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sup>23</sup> 4개의 군은 성격이 다르다. 방갈란은 공업도시이다. 삼쌍은 종교도시로 150개 가량의 종교학교가 있다. 빠르까산은 행정도시인데 최근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수머늬는 왕족의 도시로 문화재가 마두라섬 내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 4) 사법

인도네시아의 법원은 3심제로 대법원(Mahkamah Agung), 고등법원 26개, 지방법원 및 분원 326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마지막 단계의 항소법원이며 하급법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sup>24</sup> 대법원 판사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국가사법 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그 후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 중에서 판사를 임명한다. 대법원은 사법 심사권이 없는데 이는 헌법재판소(Mahkamah Constitusi)가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8월 메가와티 대통령에 의해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법 심사권과 더불어 일반선거에 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사법부는 4개의 관할로 나누어져 있다.<sup>25</sup> 먼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이 있고,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송을 다루는 행정관할이 있다. 그리고 군사관할이 있으며 회교법을 따라 결혼, 이혼, 상속을 다루는 종교관할이 있다. 군사재판소와 종교재판소의 경우 국방부 관할과 종교부 관할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각 관할사건을 담당한다.

#### 5) 요약

인도네시아의 정치는 뽀짜실라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뽀짜실라는 헌법과 기타 정책들의 기반이 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대통령 선거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임했다. 인도네시아는 행정관할이 주 30개와 특별지구 2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동

<sup>22</sup> Ibid.

<sup>23</sup> Wikipedia, [www.en.wikipedia.org](http://www.en.wikipedia.org)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sup>24</sup> The World Factbook, CIA, [www.cia.gov](http://www.cia.gov) (검색일: 2009년 6월 24일)

<sup>25</sup>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dn.mofat.go.kr](http://www.idn.mofat.go.kr) (검색일: 2009년 6월 27일)

부자바의 일부인 마두라섬은 크게 4군으로 나뉜다. 방갈란은 공업도시, 삼뽕은 종교 도시, 빠르사간은 행정도시, 수머늬은 문화도시로 각 도시의 특성이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권력이 강하다. 또한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실권을 쥐고 있으며, 이는 외부와 단절된 마두라섬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두라섬 안에서는 마을의 촌장이나 종교학교 선생이 실질적인 지도자들이다. 하지만 최근 수라마두교의 개통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국민 투표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정치에 대한 마두라 종족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3. 사회분야

#### 1) 개요

수라마두교가 건설되기 전, 외부인이 마두라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수라마두교의 완공으로 외부인과의 문화 교류가 잦아졌다. 그로 인해 전통을 중요시하는 마두라 종족은 새로운 문물이 자신들의 고유의 전통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발전할 마두라섬의 모습을 기대하는 한편,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다. 마두라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현 세대는 고유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두라 종족은 전통을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 2) 가족구조

본 조사팀이 마두라섬의 마을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마두라섬에 사는 마두라 종족은 대개 2~3세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들의 의사 결정은 가족 모임을 통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1세대 가정의 경우, 가정의 의견에 무게를 실는 편이다.

#### 3) 종족 공동체 구조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의 여타 종족과 같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각 마을에 있는 모스크를 기준으로, 모스크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맘(Imam)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실질적인 종교적

리더들로는 까야이가 있으며 마을 단위로 촌장들이 있다. 마두라섬의 마을은 정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마을의 지도자들의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맘들 위에는 울라마(Ulama)들이 있다. 울라마들은 공식적인 그룹으로, 무슬림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울라마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정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현지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두라 종족이 주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었다. 마두라 종족은 주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웃집과 담이 없는 대신 집의 경계를 나타내는 도랑이 파져있다. 마두라 섬 안에서는 외부인의 마을 방문이 하루 사이에 온 동네에 퍼질 만큼 소문이 빠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두라 종족은 외국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질시를 두려워하여 초대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마두라 종족은 외부인을 환영할 때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한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배고프면 먹을 것을 내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내어주는 사람들이다. 마두라 종족은 이웃 마을과의 교류가 적기 때문에 지역마다 성격이 매우 다르다. 빠트까산 주변의 한 마을은 마을 주민의 60%가 빠트까산을 방문한 적이 없고, 90%가 수머늬를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웃마을과의 교류가 매우 적다.<sup>26</sup>

마두라 종족의 주요 이웃 종족은 자바족이다. 자바족은 체면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반면 마두라 종족은 솔직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자바족은 마두라 종족을 야만적이고 거칠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마두라 종족의 특징 중 하나인 짜룩 문화 때문에 자바족이 마두라 종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동부 자바에 거주하는 중상층 사람들은 집안에 도둑이 들면 마두라 종족이 범인일 것이라며 지레 짐작하기도 한다.

#### 5) 여성의 역할

마두라섬에서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의 10%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아내에게 준다. 마두라 종족의 여성들은 외모를 특별히 신경 쓰는 편이므로 남편이 그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 마두라섬에 정착된 문화이다. 과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가하거나 통금 시간을 두는 등 여성들에게

<sup>26</sup> 본 내용은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한 것을 참고하였다

제약이 많았다. 또한 해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다. 과거에 마두라 종족의 여성들은 발목에 1kg이상의 은발찌를 함으로써 걷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가하거나 통금 시간을 두는 등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남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남녀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추세이다.

## 6) 요약

마두라 종족은 솔직하고 호탕한 성격을 가졌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하지만 이웃간의 허물없는 친밀함 때문에 질투도 심하다. 또한 마두라 종족의 강한 집단성은 그들로 하나되게 하면서도 집단 내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다. 하지만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마두라섬의 마두라 종족은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든 종족이 아니다. 이들이 점점 외부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진다면 지금보다 복음의 수용성이 더불어 커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경제분야

### 1) 개요

인도네시아는 2008년 GDP가 \$9,159억으로 세계 16번째 경제대국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과 저임금의 인력자원이 풍부하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연평균 5.9%의 GDP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빈부격차 가운데 있다.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계가 부요한 계층이고, 인구의 약 80%가 연간 소득 \$1,000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은 것으로 인해 자체 자본이 취약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다.

마두라섬은 동부 자바의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다. 자바섬과는 달리 마두라섬은 농업이 주요 산업이 될 만큼 비옥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마두라섬 내의 경제적인 기회들은 제한되었으며, 결국 만성적인 실업과 가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마두라 종족이 마두라섬을 떠나는 원인이 되었고, 현재는 대다수의 마두라 종족이 섬 외부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 2) 산업구조

2008년 CIA의 통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비중이 13.5%, 2차 산업비중이 45.6%, 3차 산업 비중이 40.8%이다. 인도네시아의 2008년 GDP는 \$9,159억으로 세계에서 16번째 순위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약 2억 4천만 명에 달하며, 월 최저임금이 약 \$9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식민통치에 뒤따른 자체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경제개발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마두라 섬 사람들은 대부분은 1차 산업에 치중해 있다. 마두라섬은 자바섬과 달리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 따라서 마두라 섬에서 생산되는 자급 곡물은 주로 옥수수나 담배 등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한정된 농작물이다. 어업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 이루어진다.



〈그림 III-5〉 염전

마두라섬은 염전으로 유명하다. 수머늬에는 일년에 28만톤의 소금을 생산해 내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염전이 있다. 빠르까산의 염전도 일년에 7만톤의 소금을 생산한다. 마두라섬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인도네시아 전역과 동남아시아 각지로 수출한다. 현재 마두라섬에서 2차 산업은 전무하다. 그러나 수라마두교가 완공됨에 따라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마두라 섬 사람들의

의 전통 산업으로는 그들의 전통 옷감인 바틱이 있다.

## 3) 발전수준

인도네시아의 높은 GDP 순위나 꾸준한 경제 성장을 등 이러한 경제 규모는 수 많은 인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2009년 1인당 국민 GDP는 \$3,900으로 세계에서 157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빈부 격차 또한 매우 심각하다. 인구의 약 10%의 상류층은 선진국의 소비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인구의 약 80%는 연간 소득 \$1,000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한편, 2009년 6월 인도네시아의 환율은 \$1에 약 Rp 10,300<sup>27</sup>였으며, 물가 또한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적 비중을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2008년도 상반기 중 자바섬이 총 GDP의 58%를 차지하였고, 이어 수마트라 섬이 24%, 칼리만탄섬이 10%를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자바섬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sup>28</sup>

2009년 6월 14일 마두라섬과 수라바야를 잇는 수라마두교가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와 단절되었던 마두라섬에 수라바야 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중심도시인 빠르까산에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마두라 종족의 대부분은 기계의 도움 없이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농민들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요구된다. 설상가상으로 마두라섬은 물이 쉽게 공급이 되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마두라 종족은 미약한 수도시설로 공급되는 물을 작은 웅덩이에 모아 놓은 후, 바가지로 물을 길고 걸어 다니며 조금씩 농경지에 붓는다. 마두라 종족은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댐들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농경지 옆으로 흐르는 약 2m 정도 너비의 개울물이 여기저기 형성되었으며, 부족한 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두라 종족은 이 개울물을 목욕이나 빨래와 같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 개울물조차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마두라 종족 내의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마두라 종족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 기초해있다. 소수의 지주들이 마두라섬 내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반 농민들은 지주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이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소작인들은 하루 평균 \$2를 번다고 한다.

마두라섬의 도시는 고층건물이 없는 소도시이다. 이 도시들은 마두라섬의 동과 서를 잇는 국도를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가게나 식당에서 일한다.

#### 4) 주요산품

인도네시아는 석유, 가스, 석탄, 목재, 동광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국외로 수출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 OPEC 내 5% 생산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석유, 가스 등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22.5%를 차지하였다.

<sup>27</sup> 인도네시아 화폐단위 루피아(Rupiah)의 약자, Rp100 = 12.45 원 (2009년 11월 4일)

<sup>28</sup>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www.search.eb.com (검색일: 2009년 6월 29일)

마두라섬에서는 일년에 35만톤의 소금이 생산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소금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전역과 동남아시아로 팔린다. 건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소금이 완성되며, 우기에는 3개월이 걸린다. 건기의 경우, 10일 동안 소금이 약 3센티 가량 쌓인다. 어민들은 10일 주기로 소금을 굽어낸다.

마두라섬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작물은 담배와 옥수수이다. 이 외에도 고구마나 싱퐁<sup>29</sup>(Singkong)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있다. 건기에는 주로 담배 농사를 하는데 7월에 마두라섬은 담배농사가 한창이다. 담배 잎을 따는 시기는 8, 9월이다. 이 때 농민들은 그들이 재배한 담배 잎을 자국내 외국 회사에 판다. 만들어진 담배는 외국으로 수출되기보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소비한다. 우기에는 주로 옥수수 농사를 한다. 대부분의 마두라 종족은 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쌀처럼 만들어 먹는다.

마두라 종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사육을 한다. 실제로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이렇게 소를 사육하는 이유는 해마다 끄라뻘 사삐(Karapan Sapi)라는 소 경주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마두라섬은 끄라뻘 사삐로 인해 소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마두라섬 곳곳에 황소시장이 있는데 삼뽕에 가장 큰 황소 시장이 있다. 황소 시장에서 소는 경매로 팔리며, 구매자의 대부분은 마두라 종족이지만 드물게 자바족도 있다. 소가 클수록 좋은 소로 평가되며, 소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소 한 마리는 보통 \$800이며 작은 소는 \$200~300이다. 작은 소는 2년 정도 키우면 그 가격의 3배 정도로 팔 수도 있다. 소는 식용이나 농사 혹은 소 경기에 사용된다. 소 시장 인근에는 여러 시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 시장을 가면 먹거리, 옷, 생필품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 5) 요약

마두라섬의 마두라 종족의 주업은 농업이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 사육도 하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잡기를 한다. 마두라섬의 주요 생산물은 소금과 담배와 옥수수이다. 마두라 종족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그들의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 생활분야

<sup>29</sup>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긴 뿌리채소류이다. 찌서 먹기도 하고 얇게 썰어 튀겨 먹기도 한다.



## 1) 개요

마두라 종족의 하루는 기도시간과 금요일 예배를 알리는 모스크의 아잔(Adhan)소리로 시작한다. 마을마다 1~2개씩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하루에 다섯 번 (새벽 3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경)씩 울린다. 아랍어로 '알람'이라는 뜻의 아잔은 무아진(Mu'adhdhin)이 행한다. 무아진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선택되며 모스크에서 일한다. 이들은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해 아잔소리가 널리 퍼지게 한다. 아잔소리의 리듬은 이슬람 특유의 음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알 꾸란이나 기도문<sup>30</sup>으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몸을 깨끗이 씻은 뒤 새벽기도를 1시간 가량 드린다. 그리고 그날 하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시장으로 간다. 새벽 5시경에 싱싱한 생선들과 고기, 채소 등이 새벽시장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가장 붐빈다. 가족이 식사를 마치면, 아이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하고 농부들은 밭을 일구러 간다. 혹은 베짜기를 운전하며, 그 외의 각자 일을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Batik)을 만드는 작업은 주로 여성들이 한다. 작업을 하던 여성들은 11시에 아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 드린다. 아이들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학교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대개 점심을 먹은 뒤 가장 더운 정오 무렵에 낮잠을 잔다. 이 시간에는 시장도 상점도 잠시 문을 닫는다. 그 후 오후 3시에 다시 기도를 드리고, 일을 재개한다. 저녁 6시경에 또 다시 기도를 드린 뒤,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마지막으로 밤 9시경에 기도를 드리고 10시 정도에 잠자리로 간다. 반면, 도시의 마두라 종족은 낮잠 자는 시간이 없이 하루 일상을 보낸다.

## 2) 식생활

〈표 Ⅲ-1〉 동부자바 재래 시장의 식료품 가격 (Rp/kg)

품목	가격	품목	가격
쌀	7,000~8,000/kg	감자	5,000~6,000/kg
옥수수쌀	4,000/kg	계란	13,000/kg
두부	500~2,000/개	닭	22,000/kg
바나나 튀김	5,000/봉지	바나나	18,000/송이
미니 파인애플	2,000/3개	귤	4,000/kg
빨간 사과	17,000/kg	노란 사과	10,000/kg

<sup>30</sup> “알라는 지극히 크시도다. 우리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맹세하노라. 예배하러 오너라. 구제하러 오너라. 알라는 지극히 크도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과거에 마두라 종족의 주식은 옥수수였지만, 지금은 쌀을 수입해서 쌀밥을 해먹거나 옥수수량 섞어서 먹는다. 마두라 종족은 보통 바나나 잎을 펴 놓은 큰 소쿠리에 밥을 넣어 보관한다. 바나나 잎에 쌀을 넣고 찐 밥을 론퐁(Lontong)이라고 하며, 마두라 종족은 국물이나 나물, 혹은 땅콩소스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 밥에 찜발(Sambal)소스, 닭고기, 야채 등을 넣어 볶은 나시고랭(Nasi goreng)과 볶음라면인 미고랭(Mie goreng)도 마두라 종족이 주로 먹는 음식이다.

반찬으로는 나물무침과 비슷한 칸쿱(Kangkung), 땅콩소스를 곁들인 나물, 인도네시아식 메주인 템페(Tempe), 튀긴 두부, 삶은 계란, 닭고기 등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매운소스인 찜발(Sambal), 달달한 소스인 케찹 마니스(Kecap manis), 튀긴 과자를 함께 먹는다.

육류는 주로 닭고기, 소고기, 염소고기가 있다. 이슬람교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마두라 종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떼(Sate)는 꼬치구이를 일컬으며, 닭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사떼는 본래 마두라의 전통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떼보다 사떼 마두라를 선호한다. 소고기로 만든 사떼는 크기가 크며, 다른 사떼에 비해 질기다. 마두라 종족은 소나 염소 등의 내장으로 국을 잘 끓인다.<sup>31</sup> 일명 내장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양이 풍부하다. 그리고 소도



〈그림 Ⅲ-6〉 소또아얌

(Soto)란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설렁탕과 비슷하다. 특수한 향과 색깔을 내기 위하여 꼬미리(Kemiri)라는 열매 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노랗게 변한다. 소또는 자바섬 전 지역에서 좋아하는 값싼 음식이다. 한편, 마두라섬 인근 해협과 강에서 메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생선, 오징어, 조개, 새우, 게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튀기거나 삶아서 먹는다.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기온이 높고 사시사철 여름이기에 식재료가 상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날음식보다는 익히고 튀긴 음식이 많다. 상풍 튀김, 멸치가루를 뿌려 튀긴 과자, 꼬인 우동 모양으로 생긴 과자 등을 꼬루뽕(Kerupuk)이라 하며 마두라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마두라 종족은 찜쌀로 떡을 만들어 바나나 잎에 싸서 파는데 떡의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바나나가 들어있는 떡은 나가사리(Nagasari)라 하고, 코코넛가루가 들어있는 것은 라삿(Lapat)이라 한다. 음료는 거의 달게 마시는데 주로 뜨

<sup>31</sup> 인도웹, www.indoweb.org (검색일: 2009년 6월 30일)

거운 차나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 커피를 마신다.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딸기, 메론 등으로 과일주스를 만들기도 한다. 열대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철마다 과일이 많이 열리는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싹라, 굴, 사과, 수박, 메론, 파파야, 코코넛 등이 있다. 따알(Ta'al)은 마두라섬의 과일인데 작은 코코넛 같고 겉에 껍질로 싸여있다. 수머늌에서는 말린 따알을 돌돌 말아서 간식으로 먹는다.

〈표 Ⅲ-2〉 동부자바 재래 시장의 공산품 가격 (단위Rp)

품목	가격	품목	가격
운동화(성인용)	55,000	운동복	17,500
여성용 샌들	15,000	청 반바지	65,000
아동 운동복	20,000	아동용 속옷	15,00
가방	25,000-27,000	바틱 원피스	25,000

### 3) 의복

마두라 종족, 특히 수머늌에 사는 마두라 종족은 일상복, 행사복, 계층에 따른 의복이 각각 있다.<sup>32</sup> 남성들은 검은색의 뽀소(Peso)라는 옷을 입는다. 바지도 검은색이고 헐렁하며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윗옷은 마두라 종족의 조상인 해적을 상징한다. 빨간색은 피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뽀와 정직진실을 뜻한다. 주머니가 있는 가죽벨트도 함께 착용한다. 부가적으로 사롱(Sarong)을 어깨에 걸쳐서 입기도 한다.

여성의복은 녹색이나 적색의 선명한 문양으로 되어 있고, 바주 소노(Baju sono)라 부른다. 벨트를 차고, 싸롱 비니(Sarong bini)라 불리는 긴 솔로 한 쪽 어깨를 두른다. 남녀 모두 감빠란(Gamparan)이라는 나무신을 신기도 한다. 행사가 있을 때에 남성은 타카 부완(Taka buwan)이라는 길고 큰 낫을 허리춤에 찬다. 여성들은 일상복처럼 입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차림을 한다.

빠라자지(Parajaji)는 귀족과 서민 사이의 계층의 사람들인데, 빠라자지 남성들은 보통 바주 타콰(Baju taqwa)라는 옷을 입는다. 이 옷은 은이나 금으로 된 단추를 달고 주름이 없는 긴 흰색의 바틱이다. 또한 남성들은 에펙(Epek)이라는 물결 모양 날의 단검을 차기 위한 벨트를 차고 모자를 쓴다. 한편 여성들은 검정색 바주 소노를 입는다. 긴 소매 끝에는 은색 단추가 있고, 보다 선명하게 동물이나 나뭇잎 문양이 그려진 마두라 바틱으로 싸롱을 입는다. 귀족들의 의상은 빠라자지와 거의 비슷하고, 장신구만 다르다. 남성 귀족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된 에펙을 차고 모자를 쓴다. 여성 귀족은 소노라

<sup>32</sup> Real Javanese and Indonesian Clothes, [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http://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 (검색어: 2009년 6월 29일)

는 긴 소매 끝에 6개의 금 단추가 달린 빨간 벨벳 혹은 짙은 파랑이나 녹색으로 된 드레스를 입는다.

전통 결혼복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입는다. 첫째 날 밤에 신랑은 옷옷을 입지 않고 신부만 큼벤(Kemben)이라고 하는 가슴부분을 감싸는 옷을 입는다. 그리고 목, 손가락, 팔을 장신구로 꾸민다. 둘째 날 밤에는 크라톤 케포트렌(Kraton kepotren)이라는 옷을 입는다. 신랑은 레이스가 달린 검정 코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신부는 벨벳 레이스로 전부 꾸며진 길고 검은 꼬바야(Kebaya)를 입는다. 셋째 날 밤에는 신부나 신랑이 타와나 소노 의상을 입는다.

빠라자지와 귀족들은 결혼의식을 3일간 한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하루 동안만 결혼의식을 하지만 옷은 3번 갈아입는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첫 번째 만남에서 신랑은 흰색 아랍스타일의 주바(Jubah)를 입고, 신부는 머리까지 덮는 긴 흰색 치마를 입는다. 두 번째 만남에서 신랑은 넥타이와 검은색 코트를 입고, 마두라의 전형적인 머리쓰개인 블랑콘(Belangkon)을 착용한다. 그리고 뒤에 물결모양 단검을 찬다. 신부도 긴 꼬바야를 입는다. 세 번째 마지막 만남에서 신랑은 바지, 코트를 입고 넥타이와 머리 쓰개를 입고, 신부는 긴 옷과 꼬바야를 입는다.

남성은 주로 반팔을 입고 긴 바지나 싸롱을 입는다. 여성은 긴 치마나 긴 바지, 긴 소매를 입지만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을 수 있다. 남성들은 행사나 기도, 예배를 드릴 때 페즈(Pez)라는 모자를 쓴다. 이마가 드러나게 쓰는 것이 특징이며 그물처럼 생긴 하얀 페즈도 있고, 챙이 없는 까만 페즈도 있다. 여성들은 머리카락과 목 부분을 가리고 얼굴만 내놓는 히잡(Hijab)을 쓴다. 기도나 예배 드릴 때는 머리부터 발, 손까지 덮는 하얀 옷을 입는다. 신발은 샌들이나 운동화를 신는다. 한편, 현대화와 서구화의 영향으로 젊은 계층은 청바지를 즐겨 입으며 반팔을 입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 4) 주거



〈그림 Ⅲ-7〉 주거환경

마두라 종족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는 참나무, 벽돌, 시멘트, 타일 등이 있다. 마두라 종족은 자떠나무를 얇게 잘라서 대나무 공예품처럼 엮어서 벽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벽은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다. 마두라섬 내의 집은 흰색 벽돌을 세우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채워 짓거나 시멘트로 짓는다. 바닥은 흙이나 타일로 되어있다. 흙 바닥이어도 맨발로 돌

아다니거나 앉아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천장을 우리나라보다 약 1.5배는 높게 만들고, 타일이나 시멘트로 집을 만들어 시원하게 한다. 하지만 철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무너지기 쉽다. 마두라 종족의 지붕은 붉은색이며, 한국 전통 가옥의 대문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은 소를 한 두 마리씩은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집도 있다. 닭, 병아리, 고양이는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돌아다니게 놓아둔다.

시골에서는 나무장작을 불로 지펴서 음식을 익히며, 동부자바 도시에서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집도 많다. 실내에는 전기가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마두라 종족은 전자 제품을 쓸 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때문에 많은 집에 밝지 않은 형광등, 선풍기 한 대 정도의 기본적 가전제품만 갖춰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거실에는 아랍어로 쓰여진 알 꾸란, 메카를 그린 양탄자와 이슬람 성직자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아 종교성이 강한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5) 위생의료

본 조사팀이 한 현지 사역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많은 마두라 종족이 빈약한 의료시설로 인해 병원에서 조차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병원비가 저렴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식들은 기름진 것이 많아 성인병 발생률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합비타민이나 바나나로 영양을 보충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말랐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면 갑자기 몸이 비대해지면서 급격하게 노화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더운 기후와 축적된 영양실조의 문제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통 40세가 되면 노인처럼 보이며 수명이 짧다. 또한 마두라 종족 성인 남성의 키는 대부분 160cm 미만임을 관찰을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의 금기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 대신에 많은 마두라 종족이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피운다. 심지어는 대학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공연히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많은 어린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습관들 역시 마두라 종족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6) 환경

마두라 종족은 대부분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서 살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사용한다. 대부분의 마두라 종족은 흐르는 강물로 빨래, 설거지, 세수, 목욕 등을 하고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질환에 걸리기 쉽다. 건물 주변에 흐르는 대부분 물들과 강들은 진회색으로 보일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물을 사서 먹는다. 서민들도 손님을 맞을 경우에는 그 물을 대접하기도 한다. 열악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 되지만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 문제 이외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마두라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자바와 마두라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보통 인도네시아인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쓰레기는 주변 아무 곳에든지 버린다. 쓰레기통은 따로 찾기 힘들다. 주변에 버린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 불로 태운다.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강 의 경우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물 조차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부가 없다는 점이다.

## 7) 교통

주요 교통수단에 앙콧(Angkot), 베짜(Becak), 시외버스, 오토바이 등이 있다. 앙콧은 미니버스의 일종으로 앞 좌석에 운전수를 포함해 3명, 뒷좌석 운전사 측에 6명, 맞은편에는 4명, 뒷자석 문 앞에 2명까지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Rp 2,500~3,000이다. 베짜는 2명이 탈 수 있으며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다. 베짜는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가까운 거리는 주로 베짜를 타고 이동한다.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며 차선이 없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스럽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터미널 입장료와 버스 탑승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데, 터미널에 입장하려면 1인당 Rp 200 를 내고 들어갈 수 있다. 수라마야에서 일반 버스를 타고 마두라섬으로 이동할 때 버스를 타다가 페리<sup>33</sup>(Ferry)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VIP 버스를 타고 수라마두교를 통해 갈 수도 있다. 마두라섬에는 택시가 없으며 주로 오토바이, 앙콧, 베짜를 통해서 이동한다.

## 8) 대중매체 보급률

인도네시아 도시에는 영화관들이 있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다. 개중에는 우리나라보다 개봉을 빨리 하는 영화들도 있다. 하지만 마두라섬에는 영화관과 같이 대중매체를 즐길 만한 시설이 없다. 대신 일반 서민 가정의 반 정도가 TV를 보유하고 있다. 마

<sup>33</sup> 수상 교통 수단의 일종

두라섬의 마두라 종족은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는 DVD를 팔기는 하나 고화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드라마 채널이 있어서 “풀하우스”, “대장금”, “꽃보다 남자” 등을 방영한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와 같은 한국 영화도 TV를 통해 방영되어 많은 현지인이 한국의 대중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 9) 요약

마두라 종족은 다른 인도네시아의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더위를 견디기 위한 의식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생활과 일상에서 당연히 된다. 마두라 종족에게 이슬람은 생활 터전이요, 양식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두라 종족은 보통 하루 먹을 양식을 살 돈밖에 벌지 못하기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이 충분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며 깨끗한 식수를 구할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다.

# 6. 문화분야

## 1) 개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인도네시아 각 종족과 지방의 문화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마두라섬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섬 각지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랍,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문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종족인 자바족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본래 마두라섬은 해적들이 정착해서 사회를 이룬 곳이기에 마두라 종족의 문화는 해적문화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힌두왕국이 번창했을 당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섬의 대부분이 이슬람화 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동부자바로 이주한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렸지만, 마두라섬의 마두라 종족은 여전히 그들만의 색채가 강하다. 또한 마두라섬 내에서도 네 개의 군에 따라 문화의 특색이 다르다. 이렇게 마두라섬에는 다양한 문화가 보존되어 있다.

## 2) 예술

### (1) 음악



〈그림 Ⅲ-8〉 뮤직 다울

마두라섬은 지역마다 다른 특색의 음악이 있다. 그 중 빠므까산의 뮤직 다울(Musik Daul)은 선원들의 음악이기도 하며 빠므까산 왕국의 전통 음악이었다. 현재 마두라섬이 개방됨에 따라 정체성을 알리는데 쓰이고 있다. 뮤직 다울에 대한 빠므까산 사람들의 자부심은 매우 강하다. 한 마두라 종족은 뮤직 다울은 듣는 자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일

깨워주는 노래라고 설명하였다. 뮤직 다울은 결혼식, 할례, 귀빈 환영 등 집안의 주요한 행사에 연주한다. 또한 뮤직 다울은 졸업식 등의 마을 행사 때도 연주한다. 뮤직 다울을 연주한다는 의미는 듣는 이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뮤직 다울은 북이나 실로폰 등 타악기로 연주하며 대부분 사용되는 악기를 직접 만든다. 뮤직 다울은 보통 한자리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연주하며 연주자들이 리듬에 맞춰 노래하기도 한다. 연주는 악기들을 장착한 개조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음악을 연주할 때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트럭을 흔든다. 트럭을 개조한 모양은 전갈, 배, 곤충 모양 등 매우 다양하다.

뮤직 다울 뿐만 아니라 마두라섬 전통의 소 경주 때 연주하는 음악이 있다. 이 음악은 주로 마두라 종족 전통의 관악기인 싸로넨(Saronen)<sup>34</sup>으로 연주하며 간간히 반주로 타악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싸로넨의 앞에는 6개의 구멍이 일렬로 뚫려있고 뒤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다. 또한 이 악기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악기로 신에 대해 경건한 헌납의 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마두라 종족 사람들은 싸로넨 음악이 삶의 가치와 정신력과 문화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싸로넨을 여러 행사에서 연주하며, 싸로넨 연주가 행사를 순조롭고 신령하게 진행시킬수 있다고 믿는다.

마두라의 문화도시인 수머늬 또한 고유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 수머늬의 경우 자바족이 와서 이룬 왕조이기 때문에 음악 또한 자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수머늬의 음악에서는 자바식의 실로폰과 징이 주요악기로 등장한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있는 마두라섬에 이슬람이 전파되었을 때, 아랍인들은 모든 토속적인 음악을 버리고 알 꾸란

<sup>34</sup> Ethnic Music, [www.ethnicmusics.info](http://www.ethnicmusics.info) (검색일: 2009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친구들과 친척들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새 옷을 입는다.<sup>35</sup> 이둘 피트리 때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인사를 주고 받는다. 이둘 아드하는 이둘 피트리와 함께 이슬람 2대 축제이다. 이 축제는 메카 주변에 ‘미나’라는 곳에서 열리는 성지 순례로서의 축제이지만 전 세계 이슬람인들의 축제이기도 하다. 이둘 아드하는 아브라함이 신에게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날을 기념한다. 이둘 아드하는 이슬람력으로 12월 10일이며,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가정은 고기를 제물로 바친다. 바쳐진 고기의 3분의 1은 자신이 가지며 또다른 3분의 1은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이다. 이 날은 국가적인 기념일로 마을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독립기념일과 이슬람 축제일 이외에 여러 종교 공휴일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평등함을 추구한다는 이념 아래 모든 종교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슬람교의 기념 공휴일로는 이슬람 신년과 무함마드 탄신일, 무함마드 승천일이 있다. 그 외 종교의 기념일로는 힌두교 신년과 예수 승천일, 석가 탄신일, 그리고 성탄절이 있다. 또한 중국계 인구가 많은 관계로 구정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2) 축제

마두라 종족만의 축제로는 비둘기 경주와 까라뻘 사삐(Karapan Sapi) 라는 소 경주가 있다. 마두라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비둘기 경주장이 있다. 마두라 종족은 경주를 대비하여 오후 12시에서 1시경에 비둘기를 훈련시킨다. 비둘기 경주에는 비둘기 암수쌍을 이용한다. 먼저 암컷을 50m가량 떨어진 곳에 데리고 가서 수컷이 볼 수 있도록 위 아래로 흔든다. 그리고 수컷을 놓아서 암컷을 향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가로 승부를 가린다. 대회에서 일등을 하면 상금으로 Rp 500만을 받는다.

까라뻘 사삐는 마두라 종족에게 매우 인기 있는 행사이다. 마두라 종족의 종교는 황소라고 할 정도로 마두라 종족의 황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마두라 종족은 보통 까라뻘 사삐를 위해 경기 직전까지 한 달에 몇 십만 루피아를 투자하며 소를 살찌운다. 그 후 경기를 하는 날, 소의 항문 밑 부분을 칼로 벤다. 그 부위에 레몬과 고추양념을 뿌린다. 경기를 할 때 이 상처 부위를 바늘이 박힌 몽둥이로 때려서 소가 빨리 달리게 한다. 까라뻘 사삐는 마두라섬에서 매우 큰 행사이며 추수가 끝난 9월과 10월경 지역 지주에 의해 열리는 경주가 특히 성대하다. 특별 경주는 3일 전에 통보된다. 한편, 비둘기 경주와 까라뻘 사삐 모두 도박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마두라섬에서는 이슬람 종교학교인 뽀산뜨렌(Pesantren) 졸업식이 매우

<sup>35</sup>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www.search.eb.com (검색일: 2009년 6월 25일)

성대하게 진행된다. 뽀산뜨렌의 졸업식을 아랍어로 인띠한(Intihan)이라고 하고 인니어로 위수다(Wisuda)라고 한다. 뽀산뜨렌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졸업식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각 마을에서 뮤직 다울을 준비하여 뮤직 다울 경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졸업식 때 학생들은 각양각색으로 분장을 하고 옷을 입는다.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죽음을 희화화 한 아이돌 그룹을 따라하여 미라나 시체로 분장한 학생들도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천사로 단장하거나 중세시대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차도르를 쓴 학생들도 있었는데 정숙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화장 또한 매우 진했다. 행렬 앞에는 발리의 힌두문화식으로 꾸민 마차도 있다. 이와 같이 마두라섬의 뽀산뜨렌 졸업식은 마두라의 혼합된 문화와 종교를 잘 반영한다.

#### 4) 결혼과 장례, 출산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신부가 무슨 종족인가에 따라 결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혼담은 신랑의 부모가 주선하며, 결혼 상대자로 가까운 사촌을 선호한다. 결혼이 결정되면 신부의 부모는 ‘신부대’로 보통 가축을 선물 받는다. 신랑의 부모가 결혼식 날을 결정하며,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신부의 집에 1주일 가량 머문다. 마두라섬에서는 조혼이 일반적이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에 결혼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남성은 고등학교까지 마치기도 하고 이슬람 법에 의하면 일부다처제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마두라 전통으로 치러지는데 결혼식에는 이슬람 선생인 끼야이드 함께 한다. 결혼식을 하기 전 날 신랑의 집에서는 늦은 밤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마을 골목을 막아놓으며 결혼을 할 것을 알린다. 그 날 밤 누구든 신랑의 집에 찾아가서 축하할 수 있는데, 축하 인사를 하면서 축의금을 내는 것이 예의이다. 결혼식 당일은 아침 일찍 이슬람 사원인 마스짓(Masjid)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저녁에 호텔 같은 곳에서 피로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마두라 종족에게 출생과 결혼, 죽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출생과 죽음의 시간을 영적으로 신비롭다고 여긴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40일 동안 주위에 머물러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이슬람식 기도를 한다. 죽음 후 매장할 때도 공동묘지보다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소유지에 매장 되기를 원한다.

#### 5) 예절

인도네시아는 인니어로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있지만 이슬람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마두라 종족에게는 더 일반적이다. 아랍어로 앓살라무 알라이쿰(Assalamu alaikum),

즉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인사하고, 와 알라이쿰 살람(Wa alaikum ssalam)이라고 답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반드시 악수를 한다. 악수를 한 후에 가슴에 손을 얹었다가 내리며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 나이 차이가 클 경우 어린 사람이 악수를 한 뒤에 붙이나 이마, 입 등에 손을 대고 내리는 것이 예의이다.

마두라 종족은 해적문화의 영향으로 매우 직접적인 감정표현을 한다.<sup>36</sup> 마두라 종족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직접 접근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 본 후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접근하는 자바족과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마두라 종족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의미로도 통한다. "마두라 종족에게 맞지 않았으면 사이가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두라 종족은 관계가 좋은 사람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만일 마두라 종족이 용건 없이 와서 정중히 악수를 청하면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마두라 종족에게는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집에 자신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지속적인 방문이 될 경우, 두번째 방문부터는 선물의 양을 줄여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 찾아갈 경우 다른 지방의 특산물을 선물하는 올래올래(Oleh-Oleh)라는 풍습도 있다.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한 이 풍습은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오히려 동부자바의 마두라 종족이 마두라섬을 자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 6) 금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슬람 금기 사항들이 있다. 돼지고기 외에 이슬람 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으며 음주를 금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함부로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머리는 영혼을 담은 곳이라고 여겨 매우 신성시한다.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머리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오른손과 왼손의 구별을 분명히 한다. 오른손은 식사를 하거나 상대방과 악수를 할 때, 머리를 다듬을 때,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하고, 왼손은 용변 후 세척할 때나 쓰레기 등을 만질 때 사용한다.

## 7) 관광지

### (1) 수머늬 박물관과 궁전

<sup>36</sup> 본 내용은 마두라 종족과 인터뷰한 것을 참고하였다.

마두라섬의 관광도시인 수머넝에는 마두라의 역사가 남아있는 수머넝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 건물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원래 마차 차고였다. 박물관 안에는 독립 운동을 한 마두라인을 기념하는 그림과 마두라 종족 전통악기, 마차 등의 전시품이 있다. 또한 마두라 종족의 왕조가 적혀있는 족보도 있다. 수라마두교가 개통된 후 수머넝 박물관의 관광인의 수가 늘었다. 다리 놓기 전 한산했던 모습과 달리 박물관은 하루에 100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으로 활기를 띤다.

수머넝 박물관 앞에는 궁전이 있다. 이 궁전은 수머넝 왕조의 궁전으로 17세기경 지어졌다. 수머넝 궁전 안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마두라 종족의 혼합된 문화를 잘 볼 수 있다. 힌두식 석상들과 중국식 수저들, 손으로 직접 쓴 알 꾸란 등 다양한 문화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궁전 또한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는 없었던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생겼다. 또한 방치되어 있었던 궁전 내 건물들을 보수 공사 하는 중이다.

## (2) 대 모스크 사원과 아띠뿌라 공원

수머넝 도시의 중심에는 ‘대 모스크사원’이라는 큰 모스크가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 10대 모스크 중에 하나이다. 이 모스크사원은 이슬람의 문화에 중국과 유럽의 문화가 섞여있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이 모스크사원은 1763년 투멘꾸 아라 노또 꾸수모 1세의 지시에 의해 지어졌다. 대 모스크사원 바로 앞에는 아띠뿌라 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다. 특히 밤에 가족들의 휴양지로 적합하며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 오전 6시부터 8시 까지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음식이나 장난감,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다.

## (3) 뽀로(Pelo) 해변

뽀로 해변은 마두라섬에서 손에 꼽을 만한 휴양지이다. 뽀로 해변은 수머넝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21km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에서 봤을 때 이 천연 해변은 깨끗하고 하얀 모래와 해변 양 끝의 절벽, 그리고 코코넛 나무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아름답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발리의 해변과 흡사하다고 하여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오간다. 그렇기에 수머넝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

## (4) 꺼지지 않는 불

빠뜨까산의 꺼지지 않는 불은 라랑안 또갈(Larangan tokal)이란 마을 안에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빠뜨까산에 내장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땅으로 새어 나오면서 산

소와 반응하여 타오른다. 라랑안 또깰 사람들은 그 불의 원래 이름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라고 말했다. 죄를 지어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



〈그림 III-10〉 꺼지지 않는 불

이니 살면서 죄를 짓지 말자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 불꽃 주위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기념품 가게들이 있으며 옥수수를 판다. 가게 상인들은 아침이면 그 불에서 밥을 짓고 물을 끓여 커피도 만들어 마시거나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그 불에 튀김도 하고 생선이나 고구마도 구워 먹는다. 라랑안 또깰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불을 남성 불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큰 불을 여성 불이라고 한다. 여성 불은 남성 불과 100m 가량 떨어져 있다. 그 땅의 크기는 씨름판 크기만 하며, 소나기가 쏟아져도 땅속의 구멍만 안 막히거나 물이 안 고이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 (5) 바땅바땅(Batangbatang) 마을

수머늬의 바땅바땅 마을은 마을 전체가 연한 아이보리색의 곱고 부드러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sup>37</sup> 집안에는 매트리스 크기의 공간에 모래들이 가득 차 있는 모래침대가 있다. 거실도 모두 모래로 되어있다. 마을 사람들은 모래 위에서 자면 시원하다고 말한다. 알레르기 때문에 가려우면 모래를 바르기도 하며, 출산도 모래 위에서 한다고 한다. 또한 만삭일 때 모래가 사람의 체형대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침대보다 더 편하다고 한다.

### 8) 요약

마두라섬은 마두라 종족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섬이다. 마두라섬은 전통음악과 예술이 살아 있으며 마두라 종족의 삶도 전통 양식을 이어 오고 있다. 이제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마두라 종족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자신들의 고유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는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려고 한다. 또한 마두라섬이 개방됨에 따라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관광지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up>37</sup> KBS 2TV, “지구촌뉴스” (2008년 4월 2일)

## 7. 교육분야

### 1) 개요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은 유치원(TK: Taman Kanak-kanak) 1년, 초등학교(SD: Sekolah Dasar) 6년, 중학교(SMP: Sekolah Menengah Pertama) 3년, 고등학교(SMU: Sekolah Menengah Umum / 기술고등학교 SMK: Sekolah Menengah Kejuruan) 3년이다. 대학과정의 경우 전문학교(PT: Perguruan Tinggi)와 일반 대학(S1: Sarjana Tingkat Pertama)으로 나뉘어지며, 재학 기간은 전자의 경우 1-3년, 후자의 경우는 5-7년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석사과정(S2: Sarjana Tingkat Kedua)과 박사과정(S3: Sarjana Tingkat Ketiga)이 있다.<sup>38</sup> 인도네시아에서의 학령기는 7~24세로 본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8월에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학제연도는 2년에 걸쳐서 표시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아침 7시까지 등교하며, 저학년은 오전 중에, 고학년은 점심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하교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고온 다습한 기후와 관련이 있다.

### 2) 현황

#### (1) 인도네시아 교육 현황과 제도

2008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4,173만 9,588명으로, 2008년 전체 인구의 약 17.5%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8년 전체인구 대비 초·중·고등학생 수<sup>39</sup>의 비율은 약 15.7%이다.

그런데 OECD가 조사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와 국제학력평가점수를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비는 2008년부터 무료화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초·중학생의 비율은 전체학생수 중 86.4%로,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을 계속하는 사람들

〈표 Ⅲ-3〉 인구대비 학생 (대학생, 특수학교 학생 제외, 2008기준)

국가	전체인구	학생수	비율(%)
인도네시아	238,625,000 <sup>40</sup>	41,739,588	17.5%
한국	48,606,787	7,617,796	15.7%

<sup>38</sup> 이춘모, “개신교 종교 교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 연구”, 선교와 현장, 제 11집(2006), p187

<sup>39</sup> 한국 통계청, www.nso.go.kr (검색일: 2009년 6월 26일)

<sup>40</sup> 2008년 유엔통계보고서에 의한 인도네시아 인구통계이다.

이 현저히 적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초·중·고·대학생을 합한 전체 학생수의 5.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학교 수는 지난 35년 동안 4.2배가 증가하였다.<sup>41</sup>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는 순수등록비율<sup>42</sup>(NER: the net enrollment ratio)을 초등학교의 경우는 94.3%를, 중학교의 경우는 62.06%를, 고등학교의 경우 42.64%를 달성하였다.

〈표 Ⅲ-4〉 학교 수, 2008기준

국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도네시아	144,567	26,277	16,985
학생 수 대비 비율	0.54%	0.3%	0.26%
한국	5,813	3,077	2,190
학생 수 대비 비율	0.16%	0.15%	0.11%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의 개선, 질과 적절성의 증진, 운영과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의 질과 운영의 측면보다는 의무교육과 관련된 기본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하였다.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 학교 교육의 질은 TIMSS (Trends in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sup>43</sup>의 다른 국가들만큼 발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에 의무교육에 관한 법이 20번째로 제정됨으로써, 학생들은 무상으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표준 교육과정, 졸업생의 경쟁력, 교육 인사들, 교육에 대한 운영과 재정 확충, 양질의 교육을 위한 학력평가 등을 확립·보장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골격을 세웠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학교내의 자발적인 졸업시험으로 학생의 졸업여부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들마다 작문시험, 면담평가 등 평가 방법과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학교들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졸업시키려고 했다.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도에 국가공인시험을 통해 졸업제도를 바꾸었다. 정부는 수학과 영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평가과목으로 설정하여 졸업을 위한 최소 점수를 규정하였다. 이는 학교간의 교육수준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학교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더 많은 과목을 평가과목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최소점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sup>41</sup> Harry Firman&Burhanuddin Tola, "The future of schooling in Indonesia", CICE Hiroshima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Vol,11 No,1 (2008) pp.71~84

<sup>42</sup> 순수등록비율(NER)은 전체 공식학령인구 중, 실제로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sup>43</sup> 2003년 실시된 TIMSS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45개 참가국 중 수학은 34위를, 과학은 36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현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교육에 대한 그의 공약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과거 유도요노는 대통령직에 복무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예산을 세 배로 늘렸다. 그 결과로 교육예산이 2005년에 Rp 65조에서 2009년에 Rp 207조로 증가하였다.<sup>44</sup> 이러한 교육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유도요노는 정부예산의 20%를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유도요노는 학교 선생의 경우는 Rp 200만을, 대학 교수의 경우는 Rp 1,300만을 월 최소 실수령액으로 확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학교 선생은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는다.

## (2) 말랑의 초등학교와 마두라 종족 집단 거주지의 초등학교

한편 본 조사팀은 말랑에 위치한 초등학교(SDN Madyopuro 5, 이하 마드요뿌로 초등학교)와 마두라 종족 집단 거주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2006년부터 각 학교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고, 이로써 학교 수준의 차별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마드요뿌로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초등학교 졸업시험 평균 성적이 높아서 인근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다. 개중에는 마두라 종족 출신의 학생도 몇몇 있었다.

마드요뿌로 초등학교는 나라에서 규정한대로 종교과목을 가르친다. 그리하여 종교가 이슬람인 학생들은 방과 후에 의무적으로 학교 안의 무솔라(Musholla)에서 기도를 한다. 또한 방과 후 학교 뒤에 위치한 작은 모스크 안에서 꾸란을 읽는 법과 해석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기독교 학생들의 경우 기독교인 선생님과 함께 따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국기계양을 하면서 뻘짜실라<sup>45</sup>를 읊는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기, 보건실, 컴퓨터실 등이 있었으며,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넣은 상자도 있었다. 교실의 칠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생들이 모금한 돈의 액수가 적혀있었다.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편, 몇몇 학생들은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벵짜이나 앙꼳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조사팀은 마두라 종족이 많이 사는 마을 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또한 방문하였다. 학교의 상황은 열악하였는데 학생들은 어두운 조명 아래 수업을 듣고 있었고, 책상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의자는 여러명이 한꺼번에 앉도록 한 긴 의자였으며 등받이가 없었다. 분필은 약했고 분진이 많이 나왔다. 어떤 교실은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벽을 칠판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실마다 통로를 위해 뚫어놓은 벽에는 문이

<sup>44</sup> The Jakarta Post, [www.thejakartapost.com](http://www.thejakartapost.com), "SBY to raise teachers' pay, Kalla to up budget", (검색일: 2009년 7월 24일)

<sup>45</sup> 인도네시아 헌법의 기초 원리.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뻘짜실라에 대해 배운다.

설치되지 않았고, 때문에 방음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히잡을 착용하고 있었다. 교실 벽면에는 아랍어 철자와 뽀빠실라, 종교지도자 사진 등이 걸려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은 대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만, 대개는 영어보다도 아랍어에 더 관심을 가진다. 아랍어의 경우 아이들은 꾸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

### 3) 인식

현재 마두라 종족의 교육수준은 낮으며, 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높지 않다.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좋지 않은 그들은 교육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도 공부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선생이 전달하는 만큼만 배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라마두교가 완공되고 마두라 종족의 사회가 개방되면서,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부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대학

2007년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고졸자 중 45.7%가 상급학교로 진학한다. 그 후 51개의 국립대학과 1,262개의 사립대학에서 매년 25만 명이 졸업하나, 이중 0.3% 정도만이 졸업 년도에 취업한다.

본 조사팀은 동부자바 말랑에 위치한 UNISMA(Universitas Islam Malang)대학을 방문, 조사하였다. 1973년에 세워진 이 대학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대학 중에서 두 번째로 크며, 1981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UNISMA로 개명하기 전의 대학 총장은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종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대학은 두 이슬람 정당인 무함마디아(Muhammadiyah)와 울람마협의회(Nahdatul Ulama 이하 NU)중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UNISMA에는 교육학부, 의학부, 이슬람학부, 법학부, 수의학부, 행정학부, 경제학부, 화학부, 농업부 등 총 12개의 학부가 있으며, 각 학부에는 2~3개의 학과가 있다. 졸업학점은 필수학점 140학점과 선택학점 10학점을 포함해서 총 150학점이다. 선택과목 중에서는 중국어, 통·번역, 관광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선택과목을 더 늘려가는 추세이다. UNISMA의 전체 학생 수는 1,600여명이며, 그 중 500여명이 교육학부생이다. 교육학부는 영어학과, 인도네시아어학과, 수학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영어학과의 학생수가 제일 많다. 교육학부생은 대학 자체의 졸업평가시험을 거치고 난 뒤, 바로 선생님이로 활동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 외에도 아나운서나 오스트레일리

아의 다이아몬드 세공공장, 자카르타 회사의 해외업무부 등에 지원하기도 한다. 이리안 자야, 마두라, 깔리만탄, 발리, 동부자바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며, 그 중 약 20%가 마두라 종족이다. UNISMA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다. UNISMA의 장학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학 내부에서 주는 장학금은 성적장학금,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학생에게 약 Rp 2백만을 지급한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 정부장학금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장학금이 있다. 장학생 발탁은 단순히 성적에 기반하지 않고 활발한 활동 여부 또한 중요하게 평가된다. UNISMA의 학점은 기본적으로 A, B, C 등으로 나뉘며 최고 학점은 4.00점이다. 본 대학의 한 마두라 종족 학생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 설사 기숙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은 대학 주변에서 하숙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비용이 1년에 약 Rp 130만이다.

본 조사팀은 또한 마두라 대학(Universitas Madura) 출신의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하였다. 마두라 섬의 빠르까산에 위치한 이 대학은 교육학부(언어, 물리, 화학, 수학 등), 경제학부(경영, 회계), 예능학부 등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3학기째 재학 중이었으며, 이와 같은 학생이 1,6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전체 학생의 수는 6,000~7,000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의 경우 한 학기에 Rp 45만이며, 대학 입학금이 Rp 250만이다. 대부분 등록금은 부모가 부담하며,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학교인 마두라 대학은 근처에 있는 스테인 국립대학(Universitas Stain)보다 등록금이 더 비싸지만, 학과가 다양하여 인기가 있다. 마두라 대학은 물리나 수학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명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자카르타를 포함해 섬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온다. 성비는 약 6:4로 남성이 더 많으며, 학생들은 부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과목을 선호한다. 장학금의 경우 성적장학금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 그리고 은행 등에서 주는 기업장학금이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마을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자, 대학생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5) 요약

마두라 종족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 마두라 섬의 사교육 시장이 극히 작은 것이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적인 자립이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전문기술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수라마두교의 완공으로 마두라 사회가 불가피하게 개방되자,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두라 종족에게는 학문에 기초한 교육과 동시에 고급전문기술을 앞세운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 8. 종교분야

### 1) 개요

2억 4,000만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86.1%로, 절대 인구수에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다.<sup>46</sup> 기독교는 12%정도 되며 나머지는 힌두교와 불교가 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개개인의 신앙을 존중한다. 뻘짜실라의 첫 번째 조항인 ‘유일 신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유일신 종교를 가질 것과 그 신에 충성을 다할 것을 의무화한다. 국민들은 헌법 29조에서 인정하는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의 다섯 종교에 한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공산주의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유물론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사회적 분위기와 관습에 따라 이슬람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슬람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정통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1%뿐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종교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무슬림들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특히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슬람의 성격이 강하다.

### 2) 종교현황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법에 의해 공인된 상태이나, 종교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헌법은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만,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포교 및 선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 기관 및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인정된다.<sup>47</sup> 특정 종교가 예배당을 세우려면 지역 주민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최소 90명 이상의 신도가

<sup>46</sup> 본 수치는 2000년 CIA 자료로, 이후 자료는 종교 간 분쟁 및 갈등 문제로 공개되지 않는다.

<sup>47</sup> 1978년 8월 1일, 종교성 발표 법령 제 70호, 1978년 8월 15일, 종교성 발표 법령 제 77호

있어야 한다. 헌법에 따라 호적등본에 기입한 종교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 평생 바꾸지 않는다.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성향을 강하게 띄는 편에 속하며,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마두라 종족 무슬림들은 스스로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경건한 무슬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 종교성을 지키고자 한다. 특히 마두라 섬에 사는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 의식과 전통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철저하다.<sup>48</sup> 이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 보수적이며,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1% 미만이다.



〈그림 Ⅲ-11〉 모스크

마두라 종족 무슬림은 순니(Sunni)파 무슬림에 속하며, 개인이 체험을 통해 신과 교제하는 신비주의 이슬람인 수피즘(Sufism)의 영향을 받았다.<sup>49</sup> 순니파는 무하마드의 후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거를 통해 후계자 혈통을 잇자는 측에 섰던 이슬람 종파로서, 현재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sup>50</sup> 이들 순니파는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이슬람 조직인 NU와 보다 현대적,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무하마디아로 나뉜다. 마두라 종족은 전통주의 이슬람인 NU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마두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속 이슬람이 사회의 전반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속 이슬람은 이슬람 관습에 전통 민간 토속신앙인 정령숭배사상과 불교, 힌두교 등이 혼합된 형태로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도서 동남아 지역 전반에 퍼져 있다.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이슬람의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중동에서는 마두라 종족의 민속 이슬람이 중동의 이슬람과는 성격이 달라서 정통 이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종교성이 약해져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반해 정통 이슬람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정통 이슬람은 알라만 섬기는 신정주의, 근본주의 이슬람으로서 끼야이나 이맘을 지도자로 세워 높이고 따르는 민속적, 전통적 이슬람과는 다르다. 정통주의 무슬림들은 뻘짜실라를 거부하며 움마(Ummah)라는 범지역적 이슬람 문화 공동체를 추구한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 정도이나, 미디어를 통한 선전과 경건한 복장 착용 운동 등을 통해 갈수록 정통 이슬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sup>48</sup> 민속 이슬람에 대한 상황화 전략, 2002, 보안상 저자를 밝힐 수 없다

<sup>49</sup> 한국컴퓨터선교회, [www.kcm.co.kr](http://www.kcm.co.kr) (검색일: 2009년 6월 29일)

<sup>50</sup> 본 내용은 2009년 7월 19일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 한 바를 참고하였다.

### 3) 종교특징

마두라 종족은 스스로가 신실한 무슬림 종족이라고 믿고, 이를 자랑스러워하여 그 명성을 지키고 싶어한다. 이는 마두라 종족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조꼬톨리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마두라 종족 일부 설화에 따르면 조꼬톨리는 마두라섬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 무슬림이었다.<sup>51</sup> 이 설화는 마두라가 그 기원부터 신실한 무슬림 종족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마두라 섬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17세기 초이며, 그 이전의 마두라섬은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만연하였다.

현대 마두라 종족은 일상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행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이나 회사 등의 생활공간 곳곳에는 무슬라라는 기도처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adhan) 소리에 맞추어 무슬라에서 기도한다. 금요일 저녁에는 모스크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큰 예배가 열린다. 이들은 성지순례(hajj) 여행을 중시해서, 단 한 명의 메카 순례자가 있어도 마을 전체가 흥분한다.<sup>52</sup>

그러나 이들의 이슬람 의식들에서는 샤머니즘과 혼합된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는 쓸라마탄(Slamatan)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두라 종족은 이를 라솔(Rasol)이라 부른다. 인도 종교로부터 유래한 이 의식은 감사를 표현하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태어났을 때, 죽을 때, 할례 의식, 메카순례 때 등의 상황들에서 좋은 영을 불러 악령을 쫓아내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이다. 두꾼(Dukun)이 결정한 날 해 질 무렵에 친구, 이웃, 동료, 친척, 영혼, 죽은 조상, 잊혀진 신들 등이 모여 앉아 코란을 읊고 아멘(Amin)으로 화답하는 형태이다.

이슬람적인 생활은 이미 마두라 종족 사회의 관습과 분위기 속에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렸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을 따라야 하며, 신실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은 이들의 가정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지켜준다.<sup>53</sup> 사람들은 이슬람적 관습에 따라 사고하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비이슬람적인 문화를 방탕하며 문란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직업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마두라 종족의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슬림 사회에 편승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슬람 종교 학교에 다닌다. 이 종교학교들을 뻘산뜨렌(Pesantren)이라고 부르고, 뻘산뜨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썬뜨리(Santri)라고 부른다. 마두라 종족 사회에서는 이 썬

<sup>51</sup> 본 내용은 2009년 7월 7일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 한 바를 참고하였다.

<sup>52</sup> 민속 이슬람에 대한 상황화 전략, 2002, 보안상 저자는 밝힐 수 없다.

<sup>53</sup> 본 내용은 2009년 7월 7일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한 바를 참고하였다.

뜨리들을 통해 정통 이슬람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이어진다.

이슬람 문화는 수치와 명예를 중시하는 체면 문화이다. 이들 사회에서 죄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체면이 상했느냐 상하지 않았느냐이다.<sup>54</sup> 이러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용서보다는 복수가 정당화된다. 성격이 급하고 화통한 마두라 종족은 자신의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상하게 하는 데에 망설이지 않는다.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Potemata lebih baik daripada Potetolong)’와 같은 마두라 종족 관용어 속담이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남들 앞에서 여자나 토지 등으로 창피를 본 문제는 상대방이 피를 흘려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짜룩의 형태로 드러난다. 마두라 종족은 짜룩이 정의를 수호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여 정의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이는 마두라 종족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영적인 기운이 강한 땅이다. 귀신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라고는 하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이 믿는 귀신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조사팀은 종교학교의 졸업식의 가장행렬에서 요정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는 물론이고 귀신, 미라, 시체 등으로 분장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이슬람 중심적이며 과격한 성격을 가진 마두라 종족들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로서 동원되기도 한다.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전(聖戰, Jihad)에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순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책인 것이다. 현지인 사역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는 이슬람 전사 대부분이 마두라 종족이며, 지난 말리 테러의 테러리스트들도 그 하수인 대부분이 마두라 사람들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한다. 또한 마두라섬 내에도 급진적 이슬람에서 파견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다.

#### 4) 종교지도자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마두라 종족의 지도자이다.<sup>55</sup> 공식적인 행정 관료들은 실제로 그다지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슬람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을 울라마라고 하며, 그 아래에 크게 세 계층의 종교지도자들이 있다. 먼저 마을 어린이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들을 막까에(Mak Kaeh)가 있다. 다음으로 이맘은 모스크를 관리하고 성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이맘은 어떤 지위가 아니라 예배인도의 기능을 가진 사람을 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종교학교 뽀산뜨렌의 지도자인 끼야이(Kyai)가 있다. 끼야이는 마을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리더이다. 사람들

<sup>54</sup> 본 내용은 2009년 7월 10일 현지인 사역자와 인터뷰한 바를 참고하였다.

<sup>55</sup> 민속 이슬람에 대한 상황화 전략, 2002, 보안상 저자는 밝힐 수 없다.

은 끼야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 끼야이는 NU에서 정하며, 끼야이의 혈통 가운데서 새로운 끼야이가 이어진다. 마두라 섬 내의 끼야이들은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방에 반대한다. 또한 이슬람이 강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종교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을 동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경찰보다 끼야이의 권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마두라 종족은 스스로 정통 이슬람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주술적인 신앙에 매여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적인 기운이 강하여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흑마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sup>56</sup> 이슬람 종교지도자들과 동시에 샤머니즘 주술사인 두꾼또한 마두라 족의 일상생활 깊은 곳에 관여한다.<sup>57</sup> 마두라 종족은 이들을 신뢰하며, 가난하여 병원을 찾아갈 여력이 없는 마두라 종족 사람들은 두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두꾼은 마두라 종족의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종 끼야이와 두꾼 사이에 주도권 경쟁 및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sup>58</sup> 전 대통령 압둘라흐만 와히드가 인도네시아의 순니파 이슬람 정당인 NU의 총수이며, 국민의회 의장인 아미엔 라이스가 또 다른 순니파 이슬람 정당인 무하마디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sup>59</sup> 인도네시아 헌법은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종교법에 의해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정 종교가 예배당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최소한 90명 이상의 신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성인들은 명목상 무슬림들을 정통이슬람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이슬람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기독교적 논쟁을 다루는 책들을 발행하거나 이슬람 대중 매체를 개발하고, 뽀산뜨렌을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기독교계 학교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 중 일부이다. 또 이주민 거주 지역으로 이슬람 전도사(da'i)들을 파송하거나, 정부 및 교육기관의 주요 공직 자리에 이슬람 세계관을 심기도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의 도입을 옹호하는 쪽과 1945년

<sup>56</sup> 본 내용은 2009년 7월 19일 한국인 사역자와 인터뷰한 바를 참고하였다.

<sup>57</sup> 인도네시아의 두꾼은 주술사를 지칭하지 않고 점쟁이 두꾼, 산파 두꾼, 의사 두꾼, 영매 두꾼, 치료자 두꾼 등 두꾼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다.

<sup>58</sup> 한국컴퓨터선교회, kcm.co.kr (검색일: 2008년 12월 29일)

<sup>59</sup> 인도네시아 전반의 이슬람 상황은 아랍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자생 이슬람 단체인 올라마연합(NU)과 무하마디야에 의해 색깔이 정해진다.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속헌법 뻘짜실라를 지지하는 쪽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sup>60</sup> 이 법안에서는 미니스커트 착용시 1년간 감옥에 가고,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을 한 남녀는 5년 형을 받는 등의 내용에서 인도네시아 정치계에 이슬람 세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30여 개의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에서 샤리아나 샤리아 정신을 반영한 법을 도입했다. 특히 '메카의 앞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아체는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다. 샤리아 정신을 도입한 지방 정부는 이 법이 이슬람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도덕성을 높이고 교양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샤리아 법률이 모든 신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뻘짜실라를 바탕으로 한 헌법에 어긋나며,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갈등이 치열하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내에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존재하지만 뻘짜실라로 인해 제한적이다.

## 6) 요약

인도네시아에서는 뻘자실라 헌법에 의하여 무교를 제외한 신앙의 자유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무슬림이 절대 다수이며 이슬람 문화는 인도네시아인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렸다. 최근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샤리아 법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고 있다.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이슬람 색채가 강한 민족이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마두라 섬에 살고 있는 마두라 종족은 동부 자바에 살고 있는 마두라 종족보다 더욱 엄격한 이슬람 교도들이다. 이슬람 문화는 이들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습, 종교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간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올라마들은 마두라 종족의 비공식적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문화는 중동 지역의 정통 이슬람보다 이슬람적 색채가 약한 민속 이슬람의 형태를 띤다. 이슬람 정체성이 강한 마두라 종족에게서도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으며, 쉐라마판이라는 의식에서 이슬람과 혼합된 샤며니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 존재와 흑마술을 믿는다. 주술사 두꾼은 마두라 종족의 삶 구석구석에 강력한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속적 이슬람을 거부하고 중동의 정통 이슬람을 추종하는 근본주의 계열의 무슬림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9. 기독교 상황

<sup>60</sup> 크리스천 헤럴드, www.christianherald.tv, 2006년 9월 27일자

## 1) 기독교 개요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자신들을 지배하였던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기독교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sup>61</sup> 마두라 종족은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자바인들과의 경쟁 혹은 그들에 의한 억압의 상황에 있었다. 네덜란드는 마두라 종족의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즉, 자바족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세력으로 마두라 종족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네덜란드는 식민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을 남겨 놓고 떠났다. 반면 몇몇 마두라 종족을 포함한 많은 무슬림들은 독립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2) 기독교 현황

마두라섬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며 기독교인은 매우 적다.<sup>62</sup> 그 중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서 외딴 곳에 사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다. 또한 이들은 마두라 종족만의 교단이 아닌 자바교단(GKJW)에 포함되어 있다. 1994년 마두라섬 내에 18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13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라섬에서 가장 큰 교회는 수머눔에 있는 뽀따코스타교회(Pentakosta church)로, 1948년에 개척되었다.

그런데 마두라섬 내의 교회는 안전할 수 없다는 특성 상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 때문에 교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두라섬 내 교회에 마두라 종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회의 수로 마두라섬의 기독교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예수님을 아는 마두라 종족이 교회 밖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마두라 섬에 있는 교회는 자바교단에서 보낸 화교 목사가 지도하고 있다. 교회의 교인은 대부분 화교와 임시거주자들로써 인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인도네시아 내의 화교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한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마두라 종족은 거의 전무하다. 현지 중국인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는 마두라 종족을 전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들이 마두라 종족을 직접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3) 기독교 인식

<sup>61</sup> 민족 이슬람에 대한 상황화 전략, 2002, 보안상 작지는 밝힐 수 없다.

<sup>62</sup> 본 항목은 2009년 7월 15일 한국인 사역자와 인터뷰 한 바를 참고하였다.

마두라섬을 비롯한 인도네시아는 과거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기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sup>63</sup> 그들은 서양인은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섬에 사는 마두라 종족은 폐쇄적인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그들의 전통과 이슬람 의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보수적이다. 그들은 헐리우드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들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 부정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하여 보여지는 서양인들의 모습은 살을 드러내는 의복,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 남녀의 동석 등 이슬람에서 금기로 삼고 있는 것들을 무시한 모습이다. 대부분의 마두라 종족은 이러한 단편적인 서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정결하지 못하며 방탕한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신발을 신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예배당에 가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편한 의자에 앉아서 쉴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반면에 몇몇 인도네시아인들은 기독교를 믿기 쉬운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에 눈에 기독교가 이슬람에 비해서 엄격한 규율이 없어 의식주를 편히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몇몇 교회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두라 종족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이둘피트리 때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쌀을 주거나, 또 다른 마을 행사에 자주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종교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 4) 요약

마두라 섬의 교회는 자바교단에서 파송한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있다. 반면 마두라 종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화교들이고 소수의 마두라 종족만이 본인들이 종사하는 가정의 주인을 따라 교회에 출석한다. 한편,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 마두라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마두라 종족 성도와의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한 지역은 집단 개종으로 기독교 마을이 되었지만 주변 무슬림들이 그들의 물건을 사지 않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결국 이 마을의 주민들은 주변 지역과의 차단과 거부로 인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거나 그 마을을 떠나 예수를 믿었다. 마두라섬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은 섬 내의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외

<sup>63</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8)

부 생활로 무슬림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 전도에 열심이 없다. 예수를 믿는 마두라 종족이 거의 없는 마두라섬도 1990년대에 미전도종족을 향한 창의적 접근 사역 및 상황화 방법론 등에 의하여 현대선교의 강조와 함께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IV. 인도네시아 마두라 지역의 현재 이슈들

### 1. 대통령 선거

인도네시아는 2009년 7월 8일 역사상 2번째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세 팀이었다. 기호 1번은 메가와띠(Megawati Soekarnoputri)-쁘라보워(Prabowo Subianto)이며, 기호 2번은 유도요노-부디오노이고, 기호 3번은 유수프 깔라(Yusuf Kalla)-위란또(Wiranto)이다. 세 팀 모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 후보의 경우 자신이 중앙정보부 책임자였으며 장군출신이다. 유수프 깔라 대통령 후보의 경우 그의 조력자인 위란또가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총사령관이었다. 메가와띠 대통령의 팀인 뿌라보워 역시 총사령관이었다. 메가와띠 팀을 제외한 다른 두팀은 경제적으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유도요노 팀의 부디오노는 경제학자이며 전 대통령



〈그림 IV-1〉 대통령 후보

인 유수프 깔라도 경제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메가와띠의 경우, 경제적인 힘은 낮을지 몰라도 민족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중 유도요노 대통령 후보가 경제를 가장 중시했다. 유수프 깔라는 민주주의를 강조하였고 메가와띠는 다양함 속의 통일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주장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우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이 모범적이라는 이유로 서민들의 지지가 높았다. 이

번 선거철의 경우, 예전과 다르게 시위가 없었다.<sup>64</sup> 유도요노 대통령의 임기 시 빛이 Rp 400조가 늘었기 때문에 재임에 있어서 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요소 없이 조용히 진행된 시위였다.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국민투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이번엔 선거시 선거용지에 구멍을 뚫어서 하지 않고 체크표시를 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에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

선거일 하루 전 마을 곳곳에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마을 골목마다, 곳곳에 설치된

<sup>64</sup> 본 내용은 인도네시아에 2009년 7월 3일 한인(사업가, 40)과 인터뷰한 바를 참고하였다.

투표소마다 노래를 틀어놓아 축제 분위기와 흡사했다. 투표는 당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신상명세와 투표소 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등록하며 번호표를 받아 차례로 투표를 하였다. 개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소에서 직접하였다. 개표 시 종이를 보여주는 사람, 읽는 사람, 분류하는 사람, 벽보에 쓰는 사람 등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은 인도네시아 종교와 정치에서 최고 권위자인 울라마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더 이상 종교를 정치화시키지 말 것을 권고 받았다.<sup>65</sup> 울라마 협의회 회장은 사람들은 종교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을 내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대표는 종교를 정치화 시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조사기관의 분석가인 부르하누딘 무타디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종교적 이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9년 메가와티가 힌두교인이 되겠다고 했음에도 메가와티가 당선되었다. 또한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영부인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번 선거는 예상대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 2. 수라마두교



〈그림 IV-2〉 수라마두교

2009년 6월 14일 마두라섬과 자바섬을 잇는 수라마두교가 완공이 되었고, 6월 24일 개통되었다. 수라마두교는 5.48 킬로미터로 동남아에서 가장 긴 다리이다. 수라마두교는 중국건설회사의 참여로 500여명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투입되어 완성되었다. 수라마두교는 일반버스가 통행할 수 없으며 VIP 버스만 다닐 수 있다. 차도는 6차선으로 되어있으며 오토바이 도로는 2차선으로 따로 되어있

다. 수라마두교는 내국인으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라마두교를 실제로 보고 싶어한다. 수라바야에 온 외국인에게 수라마두교를 건너보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이다. 수라마두교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크

<sup>65</sup> "Candidates told to stop politicizing religions" The Jakartapost, 2009년 7월 3일자

다. 또한 수라마두교를 통하여 마두라섬 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아직 개통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도로가 새로 놓였다. 많은 사람들은 수라마두교로 인하여 마두라섬의 경제적, 문화적, 관광적인 요소들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5% 이상이 무슬림인 마두라 종족은 이와 같은 변화를 그리 달가워하고 있지는 않다. 이슬람의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문화가 수라마두교로 인해 변화되는 것과 자신들의 터전이 외부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동부 자바에 거주 하는 마두라 종족은 마두라섬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외부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라마두교의 완공이 주는 선교적인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자연스러워져 사역자들이 섬 내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역에 필요한 물자도 다리를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쇄적이었던 섬 내의 마두라 종족이 점차 경제·교육 등의 부분에서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마두라 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V. 마두라 종족의 선교전략

### 1. 기존 선교 현황

#### 1) 선교의 역사

15세기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sup>66</sup> 이 때 여러 서구 국가들과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문명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었다.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당시, 기독교도 함께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 그러나 포르투갈인들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전하는 선에서 그쳐, 인도네시아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한편 아랍상인들을 통하여 들어온 이슬람교는 그 세력이 더 강해지고 많은 지역에 전파되었다.

1604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뒤, 인도네시아 전역에 동인도회사와 많은 가톨릭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정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하였다. 심지어는 교회의 장소와 교인들의 수까지 지정하였다. 또한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에 교역자를 보내 전도활동을 하게 하였다. 타국의 선교사에게는 비자를 잘 주지 않았고,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경제적 요충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17세기에 자카르타의 목사들이 서부 수마트라와 다른 자바섬의 시골지역으로 파송 되었다. 18세기에는 술라웨시의 마장(Majang), 중부자바의 서마랑, 동부자바의 수라바야에 교회가 들어섰다.

이러한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의 성장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요인은 교회 안에 현지인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교회조직, 신앙고백과 생활, 그리고 신앙 훈련 등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그대로 심겨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교회행정체제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많은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반발하였으나,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 교회 내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었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종교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많은 전도자들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왔다. 이로 인해 1800년경, 개신교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 후,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합작정부아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sup>66</sup> 강신오, “인도네시아 선교역사”, 〈Mission Magazine〉, 제 147호 (2008년 1월 29일)



개신교회는 자립할 수 있었고, 교회는 인도네시아의 교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리를 하거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인도네시아는 19세기까지 한 개의 개신교단(GPI)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1935년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고, 교단들도 분리하기 시작했다. 1934년, 1938년, 1948년에 각각 다른 교단이 세워졌다. 현재는 복음주의 계통, 세계교회협의회(WCC) 계통, 오순절 계통 등 4개의 큰 조직 하에 약 280 여 교단이 분산되어 가입되어 있다.

한편, 한국 교회의 인도네시아 선교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67</sup> 먼저 제 1기는 1971년부터 1979년으로 보았다. 한국에서 파송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선교사는 박창환 선교사로, 1971년 9월 12일 대구 선교회의 후원 하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파송으로 11월에 입국하였다. 박창환은 GPIB교단 산하 수마뜨라의 방카섬에서 사역하며 유치원을 설립하고 3년 동안 사역하다가 귀국하였다. 선교 제2기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로, 제3기는 1990년 초에서 1995년까지로, 제 4기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로 보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선교 제3기에 한국 선교사 53가정 98명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고, 제4기에는 한국 선교사 54가정 97명이 입국하였다. 굳이 구분하자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선교 제5기가 될 것이다. 2004년 2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한국선교사 협의회에 등록된 선교사는 108가정 204명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오랜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항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86%를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은 마두라 종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영적 상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나, 타 종교간의 포교활동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선교활동이 목격되면 그 지역의 무슬림들이 정부에 신고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우상을 섬기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잔혹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할리우드 영화 속의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선정적인 장면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때문에 무슬림들의 신고로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활동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

<sup>67</sup> 이춘모, “개신교 종교 교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 연구”, 『선교와 현장』 제 11집(2006), pp170-171

방에는 공포영화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흑마술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한 선교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지금도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귀신을 종종 본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토속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동부자바의 우측에 위치한 마두라섬은 폐쇄적이었다. 섬 안의 마두라 종족은 타 종족의 출입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수라마두교가 개통되고 마두라섬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마두라 종족의 폐쇄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의 초기단계이며, 마두라섬의 많은 공동체는 아직 외부 문화의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 2. 마두라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 (1) 종교적 요인

마두라 종족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그들의 삶이다. 그들의 하루는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소리와 함께 시작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알 꾸란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슬람은 마두라 종족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이슬람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원이 적은 마두라섬에서 사람들은 두곤을 찾아간다. 비록 샤며니즘과 혼합된 이슬람이지만 이슬람은 마두라 종족의 일부이다.

#### (2) 끼야이의 위치

끼야이는 마두라 종족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마두라 종족에게 끼야이는 종교학교 선생 이상의 존재이다. 대부분의 마두라 종족 어렸을 때부터 종교학교에 가서 끼야이를 스승으로 모신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일이 생기면 끼야이를 찾아가간다. 외부의 손님이 오거나, 결혼식이나 장례 등 집안의 주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도 끼야이를 찾는다. 또한 수라마두교가 건설되는 것을 가장 많이 반대한 것도 그들의 세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끼야이들이었다. 이렇듯이 끼야이의 영향력은 강하다. 국가 공무원은 업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반면, 끼야이들은 마을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나 문화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 (1) 강한 집단성과 지역감정

마두라 종족은 집단성이 강한 종족이다. 그들은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한 마두라 종족 마을을 찾아갔을 때 본 조사팀은 먼저는 한 가족인지, 그리고 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인지 질문을 받았다. 또한 강한 집단성으로 인해 마을 간의 지역감정이 심하다. 마두라섬 내에서 바틱으로 유명한 두 마을도 서로 자신들의 작품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상대 마을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강한 집단성과 지역감정으로 인해 마두라 종족 내에서는 집단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이슬람적 종교성과 관습이 대를 이어간다. 또한 강한 집단성에 상응하는 지역감정으로 마을 간의 질투가 심하다. 한 마두라 종족 집에 외국인이 올 경우, 이웃집들의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2) 지리적 요인

마두라 종족은 본래 마두라섬에 사는 종족이다. 그들은 동부자바에 매우 인접해 있지만, 섬이라는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비록 네덜란드 식민지 통치 시절 네덜란드인들이 마두라섬에 철도를 놓았지만,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는데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현재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후 마두라섬은 1990년대에 와서야 전기가 보급되었을 정도로 외부와의 교류가 없었다.

##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 (1) 외부인에 대한 거부

마두라섬은 외부인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 마두라섬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다. 동부자바에 사는 자바족에게 마두라섬에게 가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마두라 종족의 배타적인 면을 들어 설명했다. 한 외국인 가정은 마두라섬에 관광하러 갔는데도 마두라 종족의 이질적인 눈초리에 계획했던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마두라섬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마두라 종족이기에 외부인은 마두라 종족에게 호기심과 불안함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사역자들은 마두라 종족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

### (2) 물질적 도움의 역효과

마두라 종족은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지 통치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런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결국 그것은 선교활동임을 알리게 된다. 그리하여 마두라 종족이 물질적 도움의 수혜자가 되더라도 관계형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타종교를 포섭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적인 특색을 띤 선행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마두라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고 차별받던 마두라섬이 수라마두교의 완공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관심을 받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마두라섬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상영했다. 또한 수머늬에서는 마두라 종족의 음악을 방영하는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시가지에는 포장도로가 놓였으며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 생겨났다. 주요 네 도시를 벗어난 지역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네 주요 도시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두라 종족에게 문화적인 요소들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빠르까산에서는 바틱 축제가 열렸고, 한 마을에서는 외부인들에게 뮤직 다울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지길 바랬다.

하지만 외부인이 마두라 종족을 직접 만나는데는 여전히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외부인은 연고 없이 섬 안의 마을을 찾아갈 수 없다. 또한 마두라 종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근대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라마두교를 통한 외부 문물의 유입이 마두라 종족의 집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부로 노출을 두려워해서 끼아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더 폐쇄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라마두교의 완공으로 마두라 종족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2)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전략적으로 채워주면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가 깊어지면, 비로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할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마두라 종족을 향한 복음의 접촉점은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 사업이 마두라 종족을 향한 효과적인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섬이 개방되면서 마두라 종족은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마두라섬의 교육기관과 교육환경은 열악하지만, 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섬의 개방은 섬 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리운 채, 의심을 받지 않고 마두라 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사업을 통해 마두라 종족의 필요

를 채움과 동시에 관계를 손 쉽게 형성할 수 있다.

### 3) 성공사례

마두라 종족을 향한 교육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어떤 사역자는 교육 선교를 통하여 이슬람대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일일행사로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또 다른 사역자는 바틱사업을 통해 마두라 종족과 접촉을 하고 있다. 마두라 종족을 향한 선교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두라 종족을 대상으로 상황화 선교가 이루어진 이래, 많은 마두라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 4. 마두라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인도네시아에는 선교의 움직임이 많았다. 하지만 복음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물들어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최대 이슬람 국가이다. 그 중 마두라섬은 이슬람이 강한 지역 중 하나이다.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이 17세기에 마두라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래 이슬람을 믿는 종족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을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마두라섬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단순한 여행객이 찾아오는 것도 의심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외부인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마두라 종족은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 하며 알리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마두라 종족을 접근하기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교는 마두라 종족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두라 종족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업의 기반이나 이유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선행을 베풀 때 그들과 접촉이 가능하더라도 관계가 형성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 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마두라 종족에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외부인과 내부인이 지니는 차이가 있다. 선교사가 외부인일 경우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내부인보다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인은 마두라 종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마두라 종족의 필요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마을의 영향력이 있는 원로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마두라 종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관계 안에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내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두라 종족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마두라 종족이다. 그렇기에 외부 선교사가 이 선교를 위한 일을 시작할 때 내부인과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마두라섬을 향한 길은 한층 가까워졌다. 마두라섬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행으로 할 수 없다. 마두라 종족에게 동등하게 접근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외부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마두라 종족과 보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사역을 하기 위해, 조사한 바를 토대로 몇가지 선교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대상별 전략 제언

### (1) 어린이 & 청소년

#### ① 모국어 교육

마두라섬에는 인도네시아의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마두라어만을 사용하는 그들은 수라마두교가 개통됨에 따라 언어의 불편함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모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와 마을, 가정 등으로 보급하는 것은 이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② 영어 교육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인해 마두라 종족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마두라 종족은 가난을 되물림 하지 않기 위해 교육이 시급함을 느끼고, 특별히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부자바의 공립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마두라섬내의 공립학교의 영어교육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 하지만 공립학교 이외에 영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드물다. 따라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설립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축구 교실

마두라 종족 아이들은 축구를 아주 좋아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 축구는 매우 유명하다. 박지성 선수가 인도네시아 전화카드 CF에 출연한 적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사역자는 축구 교실을 통해 아이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다. 또한 축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줄 수도 있다. 주변에 축구 대회가 있을 경우, 경기에 참가하는 것도 아이들과 교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축구공을 선물하는 것도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여성

인도네시아의 가방은 대체로 내구성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마모되기도 한다. 한편 소와 염소를 많이 키우는 마두라섬에서는 가죽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고, 바틱 제조 등의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일을 여성들이 주로 도맡아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방 제조업 또한 여성들을 위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얻은 가죽을 가공하여 질 좋은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3) 분야별 전략 제언

### (1) 의료

마두라섬에서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며, 심지어는 간단한 보건소조차 없다. 이 때문에 마두라 종족은 아플 때 자연스럽게 두꾼을 찾아가게 된다. 소수의 병원이 있지만, 마두라 종족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는 일은 드물다. ‘의사에게 가느니 차라리 병을 앓다가 죽겠다’와 같은 마두라 종족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마두라 종족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은 마두라 종족의 강한 성품 때문에 마두라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 결론적으로, 마두라섬에는 간단한 질병 예방과 응급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보건소가 절실하다.

한편, 마두라섬 내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다. 마두라 종족은 주로 우물물을 사용하거나 빗물을 받아 사용한다. 수도물을 사용한다해도 물 속에 석회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가 거의 없으며 어린이나 젊은이들도 치아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과 진료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 (2) 음식 축제

‘따알’이라는 과일은 마두라섬에서만 구할 수 있다. 과일 자체를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과일을 말린 뒤 설탕에 절여 과자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닭 고기에

독특한 소스를 뿌려 숯불에 구운 ‘사뎃’라는 꼬치도 마두라 종족의 전통 음식이다. 이러한 마두라 종족만의 전통 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마두라섬의 정기 행사로 만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예술

#### ① 뮤직 다울

마두라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 행사 중 하나는 ‘뮤직 다울’이다. 약 스무명 정도의 연주자가 개조한 트럭 위에서 거리를 활보하며 연주한다. 마을 내 행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정기 공연을 갖는 전문적인 공연 단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마두라섬과 마두라 종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② 바틱

마두라섬에 거주하는 마두라 종족은 전통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마두라 종족의 전통 모직물인 바틱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하며, 집안 대대로 바틱을 만들면서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바틱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전통적으로 바틱을 만들어왔던 가정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가능하다. 바틱 스쿨을 통해 도안 만들기부터 염색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

##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 (1) 전도의 방향성

마두라 종족은 집단성이 매우 강한 종족이다. 가족이 가장 기본 단위이며 그 다음 단위는 마을이다. 따라서 마두라 종족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가족 중심의 전도나 마을 전체를 전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된다. 마두라 종족에게 있어서 끼야이나 이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영향을 미친다. 마두라 종족의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먼저 회심케 한다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를 중심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접근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마두라 종족과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포교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슬람의 영향이 특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 (2) 교회의 형태

뵌짜실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5가지 종교는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슬람을 제외한 타 종교는 종교법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가정 중심, 또는 마을 중심의 중소규모 셀(Cell) 교회의 형태가 적합한 교회의 형태이다.

이슬람에서 이맘이 제자들과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회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맘을 회심케하여 이맘이 이끄는 구역 예배에서 복음을 알 꾸란을 통해 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 (3) 현지 지도자 양성

마두라 종족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도자를 먼저 양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을이나 종교지도자에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가족에게 전한다. 그 후 다른 공동체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효과가 실로 엄청난 것이다.

## VI. 나가는 말

1,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마두라 종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종족이다. 이들은 마두라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마두라섬에 약 300만명의 마두라 종족이 살고 있다. 섬 내의 마두라 종족과 섬 밖의 마두라 종족은 종족으로써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강한 공동체성으로 섬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종족에 대한 정체성도 강하며, 뮤직 다울이나 바틱 등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진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자바족이 주류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과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두라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자신들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마두라 종족은 보통의 인도네시아인들과 같이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다. 종교 학교의 졸업식에서 나타나는 죽음을 회화화한 분장과 천사의 복장, 미라 복장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마두라 종족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은 강한 종교성으로 이어진다. 마두라 종족은 이슬람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사회적 모임이나 교육 등 삶의 근간을 이슬람에 두고 있다. 특히 섬 내의 마두라 종족의 경우,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들의 종교를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갔다.

그러나 이제 마두라섬이 수라마두교의 개통으로 개방되었다, 마두라 종족의 다채로운 문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섬 외부 문물의 유입이 불가피해졌다. 많은 공장들이 섬 내로 들어올 예정이며, 관광지들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에 몇몇 마두라 종족은 그들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수라마두교를 통해서 섬 내의 마두라 종족에 적합한 다차원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두라섬이 오랜기간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바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다. 수라마두교가 건설되기 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수라마두교를 통하여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한다. 변화로 인해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마두라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한다.

## 〈참고문헌〉

- 강신오. “인도네시아 선교역사”, 『Mission Magazine』, 제 147호
-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5)
- 이춘모. 인도네시아 선교의 이론과 실제 II, 「선교와 현장」, 제 11집(2006년 12월)
- 이춘모. 개신교 종교 교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 연구, 「선교와 현장」, 제 11집 (2006)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8)
- Harry Firman & Burhanuddin Tola. “The future of schooling in Indonesia”, CICE Hiroshima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Vol.11 No.1 (2008)
- 「Ensiklopedia Anak Nasional」 PT. Delta Pamungkas
- The Jakarta Post (2009년 7월 3일)
- 이슬람 선교, [www.jslammission.org](http://www.jslammission.org)
- 인도웹, [www.indoweb.org](http://www.indoweb.org)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dn.mofat.go.kr](http://www.idn.mofat.go.kr)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ndonesiaseoul.org](http://www.indonesiaseoul.org)
- 크리스천 해럴드, [www.christianherald.tv](http://www.christianherald.tv)
- 한국브리태니커, [www.britannica.co.kr](http://www.britannica.co.kr)
- 한국컴퓨터선교회, [www.kcm.co.kr](http://www.kcm.co.kr)
- 한국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 Britannica, [www.search.eb.com](http://www.search.eb.com)
- CIA, [www.cia.gov](http://www.cia.gov)
- EastJava.com, [www.eastjava.com](http://www.eastjava.com)
- Indonesia Cultural and Art, [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http://www.indonesiacultural.blogspot.com)